

# COS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학과 소식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역량있고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의사 양성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연혁

1977.1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원주분교 설립인가	2003.01 진리관 봉헌식(강의동 및 의학도서관)
1978.03 원주분교 개강식 및 교사 기공식	2004.02 의학교육실 개소
1981.01 원주대학으로 승격	2004.11 임상시험수기센터 개소
1982.10 원주의과대학으로 승격	2006.01 의사국가시험 전국 수석 배출
1984.02 의학과 1회 졸업생 배출	2008.05 상담·코칭센터 개소
1988.03 원주의과대학 개교 10주년 기념행사	2009.05 1회 졸업생 졸업 25주년 재상봉 행사
1989.08 제1원의학사(학생기숙사) 봉헌식	2009.11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개원 50주년 기념식
1993.05 종합관 봉헌식	2013.10 의학교육학과, 진료역량개발센터 개설
1997.10 제2원의학사(학생기숙사) 봉헌식	2014.02 COS 창간
1998.09 원주의과대학 20년사 편찬	2015.10 원재홀, 매슨홀 개소 및 명명식



COS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소식지  
2016 봄호  
발행인 홍인수  
편집인 공인덕 김영아 김진희  
박종택 박주혜 송봉환  
발행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주소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전화 033)741-0212

▲ 표지 사진 / 일산사료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모리스 선교사 등이 사용하였다. 연세대학교 재단 소유 건물 중 가장 오래된 1918년에 건축되었다. 원주시 등록 문화재로 등재할 예정이다.

▼ 소식지 이름 / COS는 터키 남서부 해안 부근에 있는 그리스령 섬으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출생지이다. 고대 그리스시대에 문예활동의 중심지였으며,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이 지어지기도 했다. 이 섬에서 탄생한 의학은 의학교육의 불모지인 강원도 원주에서 1978년에 다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이 미래의학의 중심지가 되기를 기대한다.

## 아들의 입학이 맺어 준 학부모협의회와의 인연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중인 이종원의 부 이용복입니다. 제게는 익숙한 학교 소식지 COS로부터 원고청탁을 받고 나니 종원이가 입학한 후 5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5년 전, 아들이 전해 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합격 소식은 온 가족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희망이 현실이 되었구나! '내 자식이 장차 의사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하지만 의과대학생의 학부모에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의사가 되기까지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와 함께 제 자신이 의과대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멀리 원주까지 가서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자 교수님들께서 학생을 지도할 계획과 각종 학교생활 등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박주영 학장님께서 "여기에 입학한 다이

아몬드 원석 같은 학생들을 열심히 잘 가르쳐서 꼭 보석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배정된 기숙사 방을 보았는데 또 걱정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조그마한 방을 4인이 사용하고 있었고, 가구도 낡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리노베이션을 통해 현재는 시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걱정은 돌아오는 저와 아내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런 부모의 속을 모르는 듯 종원이는 거의 매일 선배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밥도 잘 얻어 먹곤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홀로 타지로 보내면서 저와 같은 걱정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은 담임반과 동아리활동을 통한 돈독하고 격식없는 선후배관계를 특징으로 하고 서로 잘 챙겨주는 것이 장점이니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입학 후 학교에서 우편물 한통이 왔습니다. 학부모협의회 가입안내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학부모협의회?'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후에 학부모 협의회에 가입을 권유받아 가입을 한 것이 이제는 제가 회장을 맡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부모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학부모협의회는 공식적으로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학장님 이하 여러 교수님들께서 참석하셔서 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건의사항을 들어주십니다. 회비를 거두어 장학금, 의사국가고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식사제공, 졸업식 선물 등을 지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교생활에 대해 신속한 정보를 들을 수 있고, 정책결정을 위한 의견을 냄으로써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과대학생활과 진로에 대해 잘 모르는 학부모들께서 선배와 동기의 부모님과 교류하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장점입니다.

처음에는 학부모협의회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생각하시고, 학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보교환을 비롯하여 학교 일에 관심을 가진다면 더 발전하는 학부모협의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으로 인해 인연을 맺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이 발전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갔으면 합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학부모협의회장 이용복



## 뿌리와 DNA



이강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대외협력실장)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어디서 왔지?'

가끔씩 우리의 뿌리에 대한 생각과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한 적이 있었다. 우리대학의 모태가 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왜 원주라는 곳에 설립이 되었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늘 궁금했다.

우리병원 설립자중 한분이신 Dr. Murray(한국이름 모례리(慕禮理))의 전기를 읽다가 그 분이 태어나신 캐나다 노바스코샤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불세비키 공산혁명으로 전 세계가 흥흥하던 1919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갓 인턴을 마친 27세의 여린 여의사가 어떤 마음으로 멀고도 먼 조선땅에 오셨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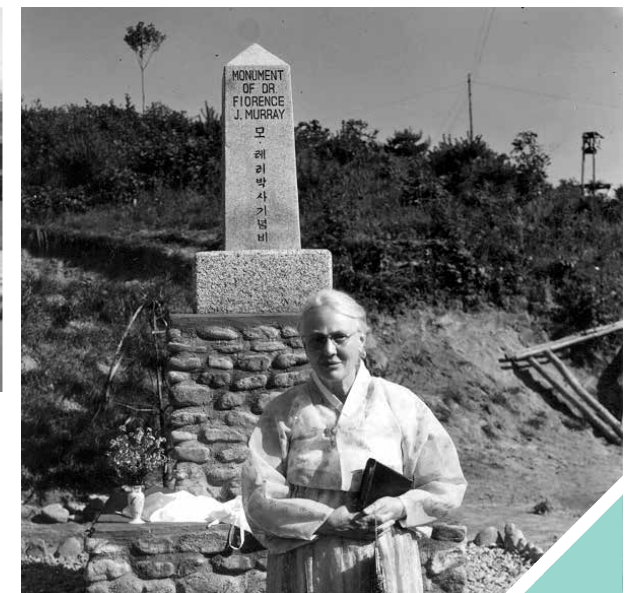
10여년 전 6월 어느 날, 인천공항에서 설레는 가슴을 안고 모례리 선생님의 고향인 북아메리카 대륙의 끝자락인 캐나다 노바스코샤 핼리팩스에 강연 기회를 얻어 세계응급의학회를 향하고 있었다. 핼리팩스까지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인천공항에서 캐나다 밴쿠버와 토론토를 거쳐 30여 시간에 걸친 긴 여정으로 핼리팩스 공항에서는 비바람이 불어 비행기가 기우뚱하며 불안하게 공항 활주로에 안착하였다. 나의 30여 시간의 힘들고 긴 여정에 비하면 기차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고베항을 거쳐 시모노세키 항을 떠나 가난과 무지로 허덕이던 조선땅까지 온 모례리 선생님의 한 달여간의 여정은 비교할 수 없는 고행길이었을 것이다.

모례리 선생님의 모교인 달하우지 대학을 방문했다. 달하우지 의과대학의 본관 벽에는 졸업 동문들의 연도별 졸업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당시는 졸업반 한 학년이 10명 내외라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모례리 선생님께서 졸업하신 해와 그 전해의 사진만 없었다. 왜 졸업사진이 없을까?

'그 당시 핼리팩스에 대폭발사고가 발생하여 2,000여명이 사망하고 9,00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의대생들도 응급처치와 수술환자 마취에 투입되었고, 졸업반 때는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자 독감으로 의사가 사망한 무의촌 시골 마을에 스페인 독감을 치료하기도 한 어수선한 시기라 졸업사진도 못 찍은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이 교차되었다. 모례리 선생님 한분만이 아니다, 뉴욕에서 성형외과 전문의과정을 마치고 11년간 우리병원에 근무하신 Dr. Robert F. Roth, 내과전문의로 7년간 근무하시고 신 Dr. Donald S. Mattson 등 우리병원에 근무하셨던 선교사들이 16분이나 된다.



'왜 그분들은 떠나면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떤 인연으로 원주까지 오시어 병원을 짓고 고생을 하셨을까? 자기나라에서 편하게 일하면서 윤택하게 지냈을 텐데…….'

이들을 회고하면 고맙고 감사할 뿐이다. 그분들이 우리 기관에 오심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존중" 정신,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개혁정신", 개인과 국가보다는 세계 인류를 생각하는 인류애를 품은 "Global mind"가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의 발자취가 새겨진 기관에서 공부하고, 잠자고 먹고 동료 선배들과 함께한 6년의 학창시절과 지금까지 우리기관에서 보낸 30여년의 세월에 감사할 뿐이다.

출근할 때마다 응급센터 앞마당에 있는 모례리 선생님의 비석을 보면서 모례리 선생님을 만나고 있다. 우리대학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우리들의 몸속에는 그분의 정신이 살아 움직이라 믿는다. 이 땅에 우리의 바탕을 만들어 주신 모례리 선생님의 DNA가 우리 몸속에 살아 움직여 우리 대학과 병원이 역사 속에 그분의 정신적 유산을 발전시키리라 확신한다.



## 일산 사료전시관 건물은 1918년에 탄생하였다!

안성구 (피부과학교실 교수, 일산사료전시관장)



필자는 서미감 병원의 의교선교사로 부임한 앤더슨의 사상과 발자취가 기록된 자료 번역과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산사료전시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의 건축 시기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다.

### \*증거 I

1918년 North 박사에게 보낸 앤더슨의 편지에 의하면 Morris 선교사의 사택은 1918년 11월에 완성되었으며, North 박사의 재정 지원에 대해 감사를 기록하였다.

Dear Dr. North

Wonju,  
Chosen  
Nov. 8<sup>th</sup>, 1918

We wish we could tell you how much it means to have Mr. and Mrs. Morris with us in the work here. They have both taken hold of the work with vigor and have already accomplished a good deal, which is a matter of great encouragement to us in our work, and then of course the social side of it is a blessing to us. The residence for Morris' is completed now, and they have a very satisfactory building. The work is well done, and the appearance of the house is very good, and the accommodations and comforts are very satisfactory. The only fault to find, if any, is that the study is rather small, and that perhaps is not a serious matter. The extra money you sent for the building was surely worthwhile, and has been well spent. Without that money, things that were really necessary would have been lacking, and Morris' appreciate that fact, too. Personally, I am glad that Wonju is still on the map of Methodist Missions, and I hope it will continue to be.

Very cordially yours,  
*A. Garfield Anderson*

\*North 박사에게 보낸 앤더슨의 편지 (1918. 1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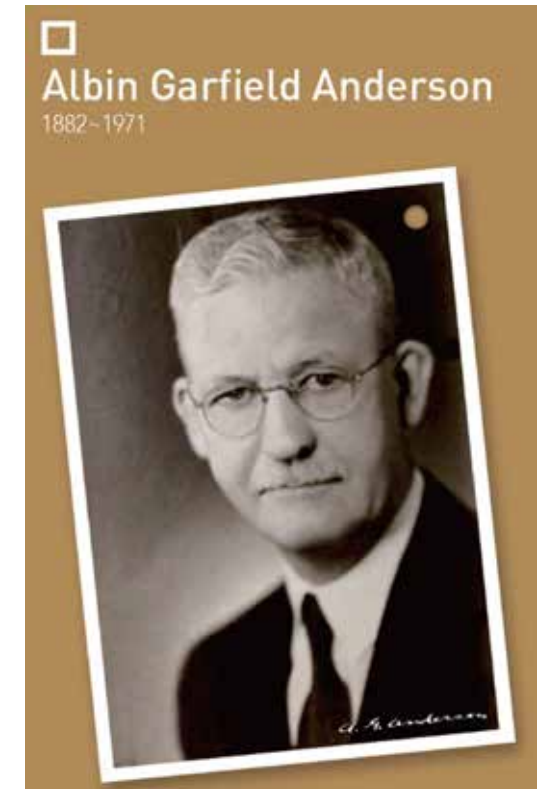
### \*증거 II

모리스는 1917년 원주에서 선교사 직분을 담당하였다. 내원 당시에 사택이 없었으므로 그는 안식년(1917~1918)으로 비어있는 앤더슨의 사택을 이용하였다. 원주에 복귀하여 촬영한 앤더슨의 사진에 의하면 창문의 위치뿐만 아니라 1층 우측의 둥근 창문은 현재의 건물과 동일하다.



Mr. Morris's house. Jiggy man with 8'x4" timbers. Wonju, Korea. J. Garfield Anderson 8'x4"

\*앤더슨 선교사가 촬영한 사택 (1918)



### \*증거 III

신도와 함께 건물 앞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6대 담임 목사(방기순)를 확인하였다. 당시의 건물은 현재와 차이가 없다.



\*원주 지방회 기념사진 (193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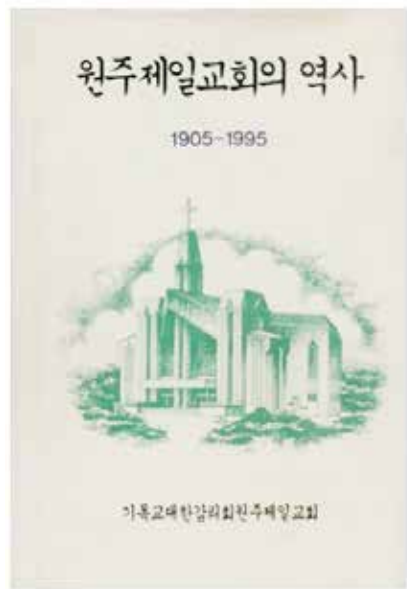




\*증거 IV

원주 제일교회의 역사에 기록된 자료에 의하면 건축 시기는 1918년이며, 붉은 벽돌 양옥 2층 60평이라고 기술하였다. 필자가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1층 31.22평(104.22m<sup>2</sup>), 2층 29.05평(96.04m<sup>2</sup>) 이므로 일치하였다.

1959년에 원주연합기독병원이 설립된 이후에 이요한 선교사의 사택(1968~1970)으로 이용하였고, 1978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분교가 설립된 후에는 외부 강사의 휴게실과 숙소로 사용하였다. 이후에 병원장 사택, 의대 교수의 숙소(1994~1998)로 활용되었으며, 1999년에 내부 공사 및 지붕을 부분적으로 수리하였다. 2005년부터 일산사료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연세대학교 건물 중에서 원형이 보존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1918년에 건립된 사택을 기록한 책자



\*모리스 선교사의 가족  
(1918년, 사택 완공 이전에 앤더슨 의료 선교사의 사택 입구에서 촬영)



\*원주연합기독병원/ 앤더슨(주디) 사택/영빈관 (1959)

■ 교육환경개선

- ▼ 아나토미지, 대학원강의실, 교수 연구실, 동창회 사무실

■ 의학과 진로 박람회

- ▼ 2015.9.11, 기초/임상의학 소개, 진로에 대한 1:1 맞춤 상담 진행

■ 베트남 탄타오 의과대학간 MOU체결

■ 베트남 의학교육자 대상 워크숍 실시

- ▼ 제목: 의학교육의 철학과 방법론
- ▼ 베트남교육부 주최
- ▼ 원주의과대학 주관

■ IOC 스포츠손상방지 연구센터 국제 심포지엄

- ▼ 2015.9.11, 올림픽의료서비스, 이전 개최국의 경험과 평창 올림픽에서의 기대

■ 유전체코호트연구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 2015.9.18, 유전체코호트 역학연구의 최진지견, 유전체코호트 연구의 현황

■ 생리학교실 개설 3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 원재홍, 매스홀 명명식 (2015.10.12.)

- ▼ 원재홍 : 원주의과대학 초대학장 원재 김세환 교수 기념
- ▼ 매스홀 : 원주연합병원개원 당시 재임(1959~1967), 2011년 20만 달러를 대학에 기증



## ■ 7억원 이상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분

## ■ 6억원 이상

광혜장학금

## ■ 5억원 이상

대학교회

## ■ 3억원 이상

학부모협의회

## ■ 2억원 이상

Dr. Donald S. Mattson, 건양의료재단,  
신한은행, 청파장학회, 태백중앙병원

## ■ 1억 5천만원 이상

강성준/유수영, 원주의대동창회

## ■ 1억원 이상

권장연, 김남권, 김남동, 김종욱, 김현수, 듀캬바이오(주), 메디웰아주내과, 의학과2회졸업동문, 의학과3회졸업동문,  
의학과4회졸업동문, 의학과5회졸업동문, 의학과6회졸업동문, 의학과7회 졸업동문, 이한규

## ▼ 참고

▼ 2016. 2. 29 현재

▼ 기부금 종류  
장학금, 교육환경개선기금, 교실발전기금, 의학연구기금, 건립기금, 재창조사업기금, 의료선교기금, 사회사업기금

## ■ 5천만원 이상

88동문장학금, YBM 시사영어사, YBM 에듀케이션 PSA, 강원도지사, 개원동창장학금, 김명철, 김태영외, 노병선,  
민성호, 민미심/염동호, 박종구, 박주영, 사노피아벤티스, 송복은장학재단, 신정호, 앙코르서울, 연세치과위생사,  
용석중/정순희, 원주의과대학생, 윤창한, 의학과1회졸업동문, 의학과23회졸업생, 이광훈, 이애실외, 이종우,  
정장균/조미연, 채종성, 치위생학과동문회, 한민희, 한재희, 황금/박진숙, 황성오

## ■ 3천만원 이상

FMC코리아(주), 김대현, 김수철, 김승률, 김영진, 김정식, 길승배, 동창회후원금, 메가스터디(주), 박기창, 박스터(주),  
박창호, 범성기, 송광선, 신명국/조동희, 엄대자담임반, 예병일, 유병일, 유한재단, 윤정환, 이범교, 이성우, 이영희,  
이원수, 정춘희, 진성기업, 차봉석, 한병근, 허혜경, 현대케미칼(주), 홍민, 홍인수

## ■ 2천만원 이상

87동문장학금, 89동문장학금, 90동문장학금, 강봉구, 강호석, 공인덕, 구철회, 권상옥, 김기연, 김성진, 김수희,  
김인규, 김진수, 김철한, 김현주, 남정직, 등영건, 롯데주류, 리원연, 박경화, 박동준, 박미나, 박정은, 박호남,  
보아스팜, 본술장학재단, 성우장학회, 송기성,송재만, 신계철, 안양희, 양정학, 어흥선, 엄원석, 연세의대82졸업생,  
오픈북, 유재하, 이규남, 이남석, 이대운, 이명섭, 이세희, 이승환, 이창근, 이형준, 임현교, 장경훈, 정갑영, 정병찬,  
조승래, (주)디오, 지광원, 지희철, 최승옥, 최영식, 최종환, 한국웨링(주), 한병근, 한용표, 한재범, 황상민

여러분들이 전해주신 기부금이 다양한 학교 개선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2015~현재)

1. 디지털랩 아나토미지(Anatomage 설치)
2. 도서관 출입 게이트 설치
3. 중앙연구실 환경개선 (실험실 및 연구원실)
4. 동창회사무실, 대학원강의실 개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금이 학교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사업에 잘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수동정

- ▼ 어영 교수(진단검사의학)  
대한내과학회 우수논문상
- ▼ 한혁동 교수(산부인과학)  
임산부의 날 국무총리 표창
- ▼ 민성호 교수(정신건강의학)  
자살예방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 안성구 교수(피부과학)  
대한피부과학회 캐릭터 공모 금상 수상
- ▼ 백순구 교수(내과학)  
대한간학회 최우수 논문상
- ▼ 정순희 교수(병리학)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수상  
석면관련 지침서 발간
- ▼ 오중환 교수(흉부외과학)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부회장 취임
- ▼ 이강현 교수(응급의학)  
한국항공의료협회 회장 취임
- ▼ 2015학년도 Best Teacher  
기초부문 : 박규상 교수(생리학)  
임상부문 : 최성진 교수(산부인과학), 안민수 교수(내과학)



- ① 어영 교수 대한내과학회 우수논문상 ② 민성호 교수 자살예방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③ 안성구 교수 대한피부과학회 캐릭터 공모 금상 수상 ④ 백순구 교수 대한간학회 최우수 논문상  
⑤ 정순희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수상 ⑥ 최성진 교수 2015학년도 Best Teacher Award

## 한혁동, 차동수 교수님 정년퇴임 최성진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1994년 졸업)



2016년 2월 13일 산부인과학교실 차동수, 한혁동 교수님의 정년퇴임 기념연회가 교실과 의국동문회 주관으로 원주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렸다. 50여명의 교실원 및 의국동문들이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모여 퇴임하시는 교수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차동수 교수님께서서는 1983년에 원주의과대학에 전임강사로 부임하셔서 부인종양학 분야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진료하였으며, 수련을 마치고 나간 모든 의국원들 마음속에 담고 싶은 본보기가 되셨다. 한혁동 교수님께서도 같은 해인 1983년도에 원주의과대학에 전임강사로 부임하셔서 강원도 최초로 시험관아기의 시술을 성공하는 등 불임치료의 기틀을 마련하고 발전시키셨다. 이 두 선배 교수님들을 빼놓고는 원주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교실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다. 동문들은 행사가 끝난 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그간에 있었던 애기들을 나누면서 퇴임하시는 두분의 건강을 기원하고 교실과 모교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수기 교수 (미생물학교실)

정영우(의학4), 이학민(의학3), 김영도(의학2), 김다현(의학2), 임대훈(의학1), 김률화(의학1)



창의적 의학적 사고. 2014년 원주의과대학에 입학해서 콜로키아 과목을 선택해야 할 순간 유난히 눈에 띄었던 제목이었다. 창의성과 의학을 결합하면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무척 궁금해서 큰 고민 없이 이 수업을 선택했고, 그렇게 나와 김수기 교수님의 인연이 이어졌다.

우리 담임반의 가장 큰 특징은,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항상 일상 속에서 김수기 교수님 덕분에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수님께서는 미생물학을 연구하시지만, 창의적 의학적 사고(의예과 1학년)와 창의의학입문(의예과 2학년)등의 교양수업을 진행하신다. 이와 같은 수업을 통해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 의학을 바라보는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그 가르침을 우리 담임반에도 늘 전수 해주시려고 하신다.

이전 선배들은 담임반 모임 때마다 특정 주제로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도 담임반 모임이면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이나 좋은 사고를 펼칠 수 있는 책을 읽게 하신다.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창의성이란 것은 특정하고 거창한, 또는 중요한 문제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문제에서도 늘 활성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란 것을 절절히 배울 수 있다. 교수님께서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안고 갔을 만한 문제나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문제들에 대해 그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쉽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담임반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김영도와 이학민, 두 선배가 교수님의 지도로 논문을 발표하신 것이다. 교수님께서는 담임반이 너무 친목에만 치우치지 말고, 연구하는 담임반을 지향하셨는데 몇 해 전 특별한 계기가 찾아왔다. 일상적인 대화 중 교수님께서 한 선배님의 아버님께서 버섯 농원을 운영하시는 것을 알게 되신 것이다. 버섯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교수님께서는 버섯의 순수 정제품인 AHCC의 국내 유통품을 찾으시던 중 한통의 전화를 받으셨는데 국내 AHCC 대리점 총판에서 AHCC를 지원해주시겠다고 걸려온 전화였다. 그 총판의 대표이자 우리 학교 김순성 선배님의 아버님께서 교수님의 연구관심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하신 것이었다. 이러한 특별한 인연을 연구로 이어가 두 선배님은 인용지수 2.664의 명망있는 국제 학술지 <Cytokine>에 "AHCC와 CpG-ODN 병용시 항암효과"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시게 되었다. 담임반 학생들이 연구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연구에 대한 어려운 인식을 극복하여 접근성을 함양하기를 원하셨던 교수님의 열정과 가르침, 이에 성실히 응하여 노력해 주신 담임반 선배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 역시 개인적으로, 2015년 봄학기에 김수기 교수님의 추천과 조언으로 미국 교환학생을 다녀올 수 있었다. 의과대학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외국학교에서 학기를 보낸다는 것이 보편적인 길이 아니었으므로 2014년 2학기에 다음 학기의 교환학생을 지원하면서 상당히 많이 망설이고, 외로워했고, 두려워했었다. 그러나 예병일 교수님과 많은 상담과 김수기 교수님의 격려와 추천 덕분에, 결국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담임반은 교수님의 여러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정성스럽게 응답하는 선배님들 덕분에 각자가 특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랑으로 한다. 우리 담임반의 일원이 되는 것은 귀중한 기회이자, 행운이다.

김률화 (의학과 1학년)

## 변진수 교수 (신경외과학교실)

백승훈(의학3), 고성민(의학3), 안재형(의학1), 함덕현(의학1), 최은영(의예2)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의 담임반은 담당교수님 지도하에 각 학년별로 한명씩 학생이 배정되어 지도를 받는 것이다. 처음 변진수 교수님 담임반에 배정되었을 때 긴장을 많이 했다. 교수님과 선배님들을 대면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혹시 실수라도 하지는 않을지 많은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첫 모임에서 새로운 구성원이 된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편하게 해 주시는 교수님을 대하면서 마음이 편해졌다. 선배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어서 첫 날부터 낯선 느낌이 전혀 없었다.

우리 담임반은 공식적으로는 한 학기에 한두 번씩 모임을 가지며 식사를 하고, 얘기를 나눈다. 교수님께서는 각 학생마다 학교생활은 어떤지, 걱정거리 없는지, 성적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등 정말 많은 신경을 써주신다. 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나 봉사활동을 가서 경험한 일 등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하나 유익한 것들 뿐이다. 선배들이 해 주는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후배들의 귀를 솔깃하게 해 준다. 담임반이라는 이유로 후배들에게 간식도 사 주고, 가끔씩 사모임을 가지면서 학교생활의 고민을 들어주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

는 것이 우리 학교에서 가장 돈독한 담임반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담임반은 졸업 후에도 모임에 나올 정도로 끈끈함을 자랑한다. 바쁜 시간을 쪼개 나오시는 인턴, 레지던트 선배님들은 물론, 원주에서 개원하신 선배님들과 오로지 담임반 참석을 위해 서울에서 원주까지 오시는 분들도 계신다. 함께 식사를 하며 인턴과 레지던트의 생활, 각 지역마다 병원어떻고, 어떤 과가 있는지, 전망은 어떤지 등 유익한 정보들을 듣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나, 수업 듣는 태도, 시험에 임하는 자세, 실습, 취미생활 등등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한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성인이 되었고,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나에겐 약간 힘들다. 하지만 이 담임반을 하면서 성적이 부진하면 꾸짖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좋은 담임반에 들어와서 앞으로의 학교생활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함덕현 (의학과 1학년)



## Methodology of Medical Education Workshop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서는 1월 18일부터 22일과 25일부터 29일, 두 차례에 걸쳐 매회 베트남 의과대학, 약학대학, 보건과학대학 교수 20명을 대상으로 의학교육방법론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Methodology of Medical Education Workshop"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최근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베트남에서 이제 의학, 약학, 보건학 교육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베트남 교육부가 2년 전부터 각 국립대학의 교육관련자들을 위해 계획한 것이다.

베트남 교육부가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이 주관한 이 행사는 매주 20명씩 모두 40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주중 5일중 4일간 원주의과대학에서 의학교육과정의 혁신과 개선방향, 의학교육의 철학, 의학대학원 제도개선, 의료계의 국제협력, 의과대학생들의 국제교류, 팀바탕 학습의 원리와 실제, 근거중심의학을 이용한 교육과정 개편, 면허제도의 발전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 후 금요일에는 첫 주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둘째 주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방문하여 그 학교교육의 특징을 소대받고, 교육 시설을 둘러보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미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는 여러 명의 베트남 대학원생이 입학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그동안 한 차례도 특별한 변화없이 반세기 이상 진행되어 온 베트남의 의학, 약학, 보건학 교육이 이번 행사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딜 것으로 기대된다.

## I'll miss the days I've spent at Wonju.

Tuyet Nguyen (베트남 Tantaio 대학교 교수)

편집자 주: 이 글을 쓴 베트남 의사 뚜엣은 원주의과대학에서 박사과정과 박사후 연수를 거쳐 2016년 2월 베트남의 Tantaio 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였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뚜엣의 원주생활에 대한 글입니다.

I was entering Wonju college of Medicine in 2012 after nearly one year staying at home for taking care of my baby. It took me long time to go to this decision as I was concerning too much on my baby at that time and I thought that I would become a burden for my advisor.

I was worried about whether I could study and research well. However, far from my expectation, my Professor seemed understanding all my difficulties, he tried to help me and encourage me. For the first few months, I could not understand the papers studied molecular works, no experiences about the experiments, felt like I was swimming in the ocean, without knowing what to do, where to go.

My supervisor, Kyu-Sang Park, at that time, tried to talk to me and instructed me more. I have never been forgetting his mind, his humbleness to serve the students. Not only my mentor, but also Professor Kong, Professor Jeong and Professor Cha, all of them were instructed by Professor Lee, whom I highly respected. Even I had few chances to meet him when he had meetings, but when looking his bright smile, his kindness and his wisdom, I recognized that our department of physiology had a very good model and all the Professors had the same vision to help each other. That inherited to the young generation, the teaching assistants and all my other lab mates. While I am writing this, I have missed all my Professors, Quan, Xu, Ranjan, Jae-sung, Ji-Hee, Jung-ku, Kyu-hee, Hanul, Soojin, Tae-Ho, and Ms. Choi.

I know one Professor may wonder if I miss him. I had first met him in the class Research Ethics, but I did not have so much chances to talk with him until the Medical Education Workshop for Vietnamese Professors was held. Through that workshop, I learnt many things from him. I became to know that he had a very broad knowledge and many experiences in many countries. He was enjoying reading, implementing many things to assess his students, to improve them... He has a beautiful mind and purified heart, Professor Yeh. Once again, I realized that Professors would have a very strong impact on the students. Good Professor makes good students. They made me changed to the vision of serving others, loving others, helping each other. In my work place, I often talk about them to my co-worker, my students because I really miss them. I am really thankful to God to lead me to Wonju and give me chances to meet his holy people. They gave me lots of sweet memories. I was asked to write about my story in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but all the time, whenever I think about this school, I think of the thankfulness, the kindness and love. And all those memories are full in my mind, but it is really hard to write about. Wishing that all of my friends there be happy and peaceful!





## 김주덕 원주의과대학 제2대 학장님을 만나다



김주덕 명예교수

김주덕 명예교수님은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가 합병되기 전인 1955년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의예과에 입학하여 연세대학교가 탄생한 후인 1961년에 졸업을 하셨다. 기초의학자의 길을 선택하셔서 미생물학교실에 입실하여 1964년에 의학석사, 1972년에 의학박사 학위를 받으셨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에서 1968년부터 2002년까지 교원으로 근무하신 후 은퇴를 하셨으며, 1985년부터 2년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제2대 학장으로 재직하셨다. 대한나학회, 나관리협회, 종균협회, 미생물학회, 면역학회에서 회장 및 임원으로 활동하셨고, 교내에서는 면역질환연구소장,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주임교수 등을 역임하시며 후학 양성에 힘쓰셨다. 2002년 퇴임 후 명예교수로 계시던 중 암이 발견되어 한 때 고생을 하셨지만 현재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셨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세준회 회장을 맡고 계신다.

김주덕 명예교수님은 필자의 은사이자 교실의 어른으로 사석에서는 자주 뵈을 기회가 있었지만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개인 인터뷰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 사전에 교실원들에게 근황을 여쭙어 보았다. 다행히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처를 수소문한 결과 분당에 거처하셔서 약속을 하고 찾아뵙게 되었다. 분당 롯데백화점 커피점에서 전화를 하니 벌써 지하철역 근처에 와 계셔서 쉬이 뵈올 수 있었다. 멀리서 오는 후학을 배려하는 너른 마음으로 시간을 정확히 맞추어 나오신 것이었다.

세준회 때 뵈고 한 달 정도 지난 후 다시 만나 전 모임에서 저녁식사에 참석 못한 변을 늘어 놓으니 너그러이 받아주셨다. 면담의 취지를 설명하고 본격 인터뷰에 들어갔다.

### ■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비교적 건강하네. 집에서 여기까지 10분이면 걸어오네! 퇴직당시 암이 3기여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항암치료하며 간신히 견뎠더니 암세포가 사라져서 지금은 혈압 외에는 별 문제 없이 괜찮아.

겉으로 보기에 아주 건강해 보이셨고, 나이에 비해 기억력과 말씀이 또렷하셨다.

### ■ 원주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1985년 3월에서 1987년 2월까지 원주의대에 와서 학장으로 일을 했지! 당시에 세브란스 의료원장인 홍필훈 교수님의 권유로 원주의대와 원주기독병원의 재정적, 행정적인 어려움을 조율하라는 특명을 받고 오게 되었네. 군의관 때도 원주에 의무시협소가 있어서 1년 근무한 적이 있소.

그리고 보니 두 자녀(김희정, 김형중)분도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각각 병리학과 신장내과 교수로 길러내셨으니 원주의과대학의 어느 교수보다도 학교를 잘 이해하고 애정을 가지시는 것이 당연해 보였다.

### ■ 당시 학교 운영에서 어려운 점과 이를 어떻게 타개하셨는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연고가 없는 곳에 온 나를 김종수 교무부장, 고춘명 학생부장이 많이 도와주었네. 군사정권 하에서 학생 소요 사태가 교내에 발생하곤 하면서 학교 재정상 들어줄 수 없는 여러 요구를 하여 난감하곤 했지. 학교가 재정적으로 자립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요구사항이 많으니 힘들었지. 당시에 세브란스와 같은 교실시스템이 없어 주임교수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처음으로 정착시킨 것으로 기억나네.

같은 해에 이종우 교수님께서 생리학교실에 부임하시면서 현재의 기초학교실이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 기초의학자인 김주덕 교수님이 학장으로 오신 덕을 입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2년을 하고 나니 2년을 더 보내며 벌여 놓은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으나 원주의 인사권은 원주로 돌려준다는 새 의료원장의 지침으로 본교로 복귀하시게 되었다고 한다.

### ■ 제 1세대 기초의학자로서 한국전쟁 이후 국내여건상 기초의학을 택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지망하신 동기와 후회 후회를 하시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기초의학 지망자가 늘지 않는데 교수님이 현 의대생들에게 주고 싶은 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집안에 의사는 없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고, 집안에 환자분들이 여러 명 계셔서 의사가 되어 어머니와 집안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의대를 선택했어. 기초의학을 하게 된 것은 미생물학교실을 창립한 유준 교수님이 선친과 초등학교 동창이신데 당시에 미생물학교실이 임상병리과의 세균학 업무와 나환자 진료까지 도맡아 여러 일손이 필요하던 차에 믿을만한 젊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게 미생물학을 권하신 것이 계기가 되었어. 어머니도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으므로 병원성 미생물 연구에 일생을 걸어보고 싶어 기초의학을 선택했는데 임상의사에 비하여 기초의학 조교와 교수의 월급이 아주 적었으나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어.

기초의학자로서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단호하신 말씀을 현재의 의대생과 교수들이 깊이 새겼으면 한다. 의학전문대학원에 기초의학을 하겠다고 지원하여 국가장학금을 받아 놓고는 졸업 후에 돌아서는, 불나방처럼 임상 의사만 하려는 지원자들에게 좀 더 큰 의학과 기초의학의 중요성과 가치를 노학자의 진정과 욕성으로 전하고 싶다.

### ■ 원주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

이제 원주의과대학이 설립된 지 30년이 지났는데 좀 더 자신의 모교를 사랑했으면 해. 원주의대는 연세의 정신과 세브란스의 정신을 계승하지만 원주의과대학은 자신이 세우고 가꾼 원주의학의 정신을 발전시키는 게 좋겠어. 졸업생과 교직원은 원주를 떠나도 모교를 잊지 말고 의대와 병원을 알리고, 환자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 자신의 의식을 잊지 않는 애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학교도 학부만 졸업하고 나간 졸업생에 대해 애정을 갖고 관심을 해서 새가 동지를 잊지 않고 "결초보은"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야 해. 내가 보기에는 원주의과대학 졸업생들에게 아직은 이런 점에서 부족함이 있는 걸로 느껴져. 졸업생들이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의 배려가 필요해.

### ■ 마지막 질문으로 학자로서 가장 보람되고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의학술, 특히 기초의학인 미생물학을 전공하여 만족하고, 훌륭한 후학을 기른 게 가장 보람된 일이야. 아쉬운 점은 항암치료를 받느라 건강에 대한 우려로 퇴직 후에 교육의 기회를 스스로 접은 것이 가장 후회되는 점이야.

노학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절차탁마" 라는 경구가 절로 떠올랐다. 학문을 향한 불퇴전의 내공을 느낄 수 있었고, 안주하는 우리의 현실을 각성하며, 기초의학자로서의 삶의 자세와 방향을 반추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점심도 간단히 하자고 하시고, 무료주차권도 준비하신 섬세함과 배려에 후학들이 왜 김주덕 교수님을 덕장으로 추앙하는지 알 것 같다. 원주의과대학과 관련된 사료를 달라는 염치없는 부탁을 드리면서, 늘 건강하게 편히 지내시길 소망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인터뷰: 김수기,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수, 1984년 졸업)



## 멀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연세인이여 영원하라!



홍영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장)

'멀리! 함께!' 힘찬 건배사와 함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에서 주최한 동창회장님과 의학과 4학년 학생들과의 만남 행사가 막이 열렸다. 홍영재 동창회장님께서 원주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후배들이 내년에 동창회 신입 회원으로 들어오기를 격려해 주시는 이 날의 행사는 불판 위에서 '치글치글' 익어가는 고기소리와 학생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일산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한우전문점에는 행사에 참여한 4학년 학생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들어찼고, 김승민 동창회 부회장님, 전철환 원주동창회장님, 조성민 원주동창회 부회장님, 정진섭 원주부총장님, 홍인수 원주의과대학장님, 그 외 학교 교수님들도 다수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를 마련하신 홍영재 동창회장님은 196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졸업, 1981년 산부인과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였고, 지난 2013년 1월에 의과대학 동창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날이 저물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의학과 4학년들에게 연세의 정신을 심어주신 행사를 준비해 주신 홍영재 동창회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행사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여 이런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까지는 동창회에서 신촌캠퍼스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녁을 사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유는 신입생들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촉망받는 인재들이고, 각 집안의 자랑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의과대학에 입학할 축하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오래 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창회에 새로 가입하게 된 신입 회원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한 명씩 악수를 하다 보니 누가 누구인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예과 이후로도 학생들을 만나는 자리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졸업생들에게 저녁 한 끼를 대접하는 이번 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저녁식사를 하며 동창의 연을 재고하는 이번 기회가 올해를 시작으로 전통으로 자리 잡아 3~5년, 길게는 10년, 20년 넘게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 이제 임기 4년째에 접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동창회장을 맡게 되셨습니까?

전에 용평에서 개최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의 밤 행사의 운영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는 동안 2년에 걸쳐서 부부동반으로 600~700명에 이르는 동창들이 참여했고, 함께 골프대회를 진행하는 등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타 학교는 감히 흉내를 내지도 못하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이 다른 동창들의 추천을 많이 받는 계기가 되었고, 심사숙고 끝에 출마를 결정하였습니다. 2013년 1월, 역대 최초로 선거를 통해 동창회장으로 선출되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용평 동창의 밤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 말고도 타 학교와 다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만의 특성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동창회 행사들을 통해 끈끈한 인간관계 형성과 의사로서의 감성을 키운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오랜 시간 의업에 종사하면서 느끼는 점인데 동창회의 숫자나 경제력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세인만의 분위기나 섬김의 리더십을 중시하는 교육이념 덕분에 환자들의 상태를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우리 동창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 후배 연세인들에게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양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미래의 의사로 자라날 후배들은 앞으로 마음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성 질환에 걸린 환자에게 "앞으로 당신이 살아갈 날이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와 같은 말은 절대로 삼가는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환자의 상태가 나쁘더라도 보호자분에게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지만 환자에게는 말로라도 "좋아질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두 번의 암을 겪었지만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말이라 여겨집니다. 환자와 악수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감하는 것이 의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들은 결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의사라도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면, 결코 좋은 의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후배들은 환자를 존중하는 의사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환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의과대학은 등록금이 비쌉니다. 여기에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투입하는 비용을 더하면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6년간의 의과대학 시절에 쏟아붓는 등록금과 기타 비용을 모두 모아 둔다면 그 돈의 이자만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자원은 미래에 이 사회를 이끌어갈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은 의과대학생들에게 투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된 후에는 받은 만큼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좋은 일이니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 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연세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의사가 될, 후배들이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이 휴일이어서 일찍 어디론가 갈 것처럼 이야기 하던 친구들까지 모두 참석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뜨거워져 장내가 소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인터뷰에 임해 주시는 동창회장님을 대하면서 나도 연세의 일원임을 느껴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인터뷰: 남동현 (의학과 4학년)





## 동창회 소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이 1978년 40명의 첫 입학생을 시작으로 개교한 이래 3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4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지 33년이 지난 금년에 제33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원주의과대학 동문들은 동창회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동창회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1998년 개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독립된 동창회를 설립하였습니다. 18년이 지난 현재는 3,000명이 넘는 큰 회원을 갖는 명실공히 중견 동창회로 자라났습니다. 역대 동창회장으로 1,2대 이종혁, 3,4,5대 김남동, 6대 용석중, 7,8대 장승기 회장님께서 수고하시며 동창회 발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현재 동창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회장님은 3회 전철환 동창이시며, 그 외 많은 동문들이 주요임원을 맡아 각자의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동창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주의과대학 동창회는 동창회주소록 보완 작업을 통해 많은 동창들의 참여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6회 길승배 동문이 개설하신 SNS 밴드를 동창회가 맡아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더 많은 소식을 공유하기 위해 밴드 초대 이어가기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창들의 경조사 및 각종 행사 안내 등의 소식은 더 자세하게 동창들에게 알려드리고자 문자와 이메일로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락창구 역할뿐만 아니라 동창의 밤 행사,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모교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과 졸업선물 증정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개최하는 '동창의 밤'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동창회의 발전과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19일에 개최될 동창의 밤 행사 또한 동창회 임원진과 준비기수들이 의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창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은 동문들의 회비를 근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동문들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동창회는 동문들에게 여러 형태의 회비 모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1년부터 CMS 계좌를 통한 동창회비 납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동문들께서 계좌를 개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대학의 동창회 조직이라기엔 미흡한 부분들도 있고, 정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원주의대 동창회는 모든 동창들이 동창회 발전을 위해서 자주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동문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소통, 화합, 단결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며 한 단계 도약하는 동창회로 발전할 것입니다.



## 2016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동창회 행사 안내

- \* 5월 14일 (토) - 25주년 기념 재상봉행사
- \* 5월 29일 (일) - 제6회 골프대회  
장소 - 여주 스카이벨리 CC
- \* 11월 19일(토) - 제14회 학술대회 및 동창의 밤 개최  
장소 - 나인트리 컨벤션 호텔

동창회 사무실 : 사무실장 김영아

전화 : 033-741-0240 / 이메일 : ywal@yonsei.ac.kr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학관 110호 (26426)



## 내 인생의 골프



송태식 (분당 웰정형외과 원장, 1989년 졸업)

요즘 의과대학의 인기가 제가 다닐 때 보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미래를 불안정하다 느끼다 보니 안정적인 전문직 중 하나인 의사가 과거보다 더 선호하는 직업이 된 듯합니다.

환자를 보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 의사의 천직이지만 많은 사람과 만나다 보니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의사의 장점 중 하나가 교수직이 아니면 정년이 없다는 것인데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으니 직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더 오래 받게 됩니다. 제가 89년도 졸업을 했으니 이제 의사가 된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의사라면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비장의 무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비장의 무기는 골프입니다. 저도 다른 취미활동을 즐기지만 기본은 골프입니다. 주위의 많은 의사들도 골프를 즐기다 보니 이제는 골프를 하지 않으면 친구, 동료들과 만남이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서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의사 동료들과 자연에서 운동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골프의 장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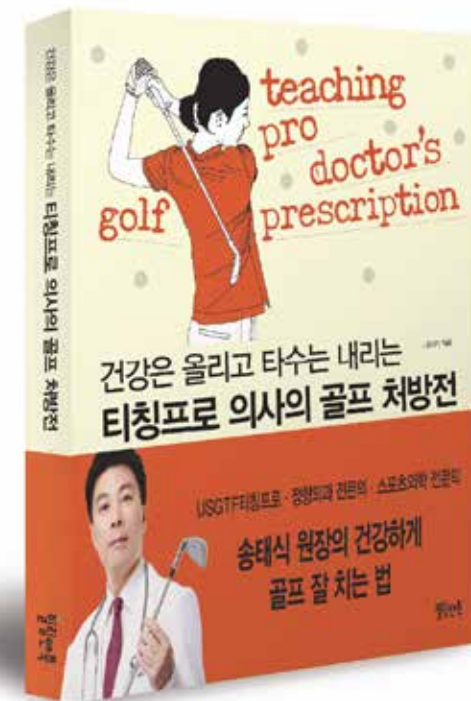
저는 경기도 분당에서 개원을 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

의입니다. 제 프로필에는 골프 티칭 프로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왜 골프 티칭 프로를 땀을 흘리며 공부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제가 골프 티칭 프로 자격증을 딴 이유는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치고, 잘 치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는 아닙니다. 분당이라는 지역이 우리나라 최고의 골프 8학군이어서 골프장이 많고, 서울에서는 만나기 힘든 200미터 이상의 드라이빙레인지들이 흔합니다. 그렇다 보니 선수와 선수 지망생도 많은데 골프도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분당에 처음 개원했을 때 내원환자의 상당수는 골프로 인한 부상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여러 운동을 배우는 것도 좋아해서 스포츠 전문의 과정도 밟았지만 그동안 배운 지식만으로 환자를 대하려다 보니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골프로의학회가 있었지만 활성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골프로 부상을 관련된 책들을 외국에서 구입해서 읽고 그것을 치료에 접목시켜 보았지만 이 역시 부족했습니다. 골프로 부상을 일으키는 스윙 기전을 아는 것이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 골프로 스윙에 대해 더 알고자 골프로 티칭 프로 자격증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공의 시절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수술 스킬을 증진시키기 위해 채석장까지 다니셨다는 이야기를 품고 있었던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티칭 프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보니 이 분야도 의사의 세계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티칭 프로를 취득하는 것은 의사가 면허증을 따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말만 의사일 뿐 임상경험이 없으므로 인턴과 전공의 과정을 통해 진료할 준비를 하듯이 골프로 레슨이라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게 보이지만 제대로 잘 하기란 어렵습니다. 골프로 유머 중에 90대 골퍼는 남 가르쳐주려고 안달이고, 80대 골퍼는 누가 물어보면 가르쳐 주고, 70대 골퍼는 사정사정해야 가르쳐 주고, 프로는 돈을 주어야 가르쳐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중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더 시끄럽다는 것이지요. 환자도 병에 따라 증상이 제각각이고 치료방법도 다르듯이 골프로 스윙을 가르치는 것도 다양한 사람들을 맞추어야 하므로 상당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유명한 티칭 프로들은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부각되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연구와 노력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티칭 프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나의 노력이 너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아직 저의 골프로 티칭 프로는 진행형입니다. 누군가의 스윙을 가르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골프로 부상과 연관된 골프로 스윙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어도 골프로 부상을 치료하는 데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자 합니다. 아직 골프로 시작하지 않은 분들에게 골프로 입문 팁을 말씀드리자면 환자가 의사를 잘 만나야 하듯이 골프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사용할 골프로 기술을 배우는 것이므로 좋은 프로를 수소문해서 배우는 동안은 정말 열심히 갈고닦아서 골프로의 깊은 참 맛을 느끼기 바랍니다.





## 졸업 30주년을 맞이하여



김남권

(포천 한솔정형외과 원장, 1986년 졸업)

생리학교실 공인덕 교수님으로부터 원고 부탁을 받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 올해가 원주의대 졸업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라서 제목을 상기와 같이 잡아보았습니다. 일개 시골의사인 저에게 소중한 지면을 허락하여주신 모교 관계자님들께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1986년 2월에 졸업하였으니 올해로 졸업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30년간의 행적을 일기 형식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고3이던 1977년 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원주분교의 설립인가가 나서 이듬해 초 본고사 과정(예비고사 성적 20%와 본고사 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던 시절)을 거쳐 첫 신입생 40명을 선발하여 1978년 3월 초 원주분교의 첫 걸음마가 시작되었습니다. 78학번의 주축이 대부분 59년생 돼지띠인데, 원주기독병원도 59년에 개원하였으니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39명(한명은 입학과 동시에 군입대로 휴학)의 학우들이 원주분교의 1회 입학생으로서 저마다 풍운의 꿈을 가지고 아직은 군사도시의 이미지가 강한 낯선 원주에서의 첫 학교생활을 시작하였으며, 그 시절 원주기독병원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ㄱ'자 형태의 오래된 병원건물, 병원 입구에 서있던 아치형태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원주기독병원이라는 간판, 바로 옆이 병원매점과 화단, 현재의 의

대 자리는 별거승이 작은 동산이었고, 그 바로 뒤에 영빈관과 나중에 도깨비집으로 불리우던 선교사집 매슨하우스, 작은 동산 중간에 임시 교학과로 쓰던 가건물, 맞은편으로는 원주청년회의소 건물과 테니스장, 농구장, 간호사원 기숙사, 병원 뒤에 위치한 콘서트 건물……. 당시에 수업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콘서트 건물 2층을 강의실로 사용한 것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3월초에 간호사 기숙사앞 잔디밭에서 원주분교 개강식 및 교사 기공식 행사가 열렸고, 행사후 간호사 기숙사 아래에 있던 병원 테니스장 앞에서 학교 관계자와 신입생 전원이 사진촬영을 했는데 이 사진이 지금은 유실된 상태라니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원주분교에서 의학공부를 시작한 39명중 현재 유일하게 모교에 계시는 분은 병리학교실 정순희 교수님입니다. 원주분교 때문에 신촌에서 내려오신 미생물학교실 고춘명 교수님께서 저희가 신입생일 때 고교시절 담임선생님같은 역할을 맡으셔서 많이 닦달하신 일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아마도 고춘명 교수님은 원주분교 초기의 산 증인이라 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교 졸업후 바로 입학하다 보니 짧은 머리에 고등학생 티를 못벗어난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 후에 그 시절에는 누구나 참여하던 병영집체훈련을 위해 성남의 문무대에 9박 10일간 입소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포츠형 머리로 깎고 나니 다시 고등학생 모습이 되었고, 그 해 여름 동대문운동장에서 개최된 봉황대기 고교야구대회에 고교생 입장요금을 내고 들어가 고교동창들과 함께 열심히 모교를 응원한 일이 이제는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수업을 맡으신 교수님들께서 신촌에서 자주 내려오실 수 없다 보니 1주일분 수업을 한꺼번에 하루 만나절씩 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이나 경청하는 학생들이 다 힘들고, 학업성취도도 많이 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원주의외의 타지역 출신들은 하숙과 자취로 숙식을 해결하는 일이 졸업하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979년에 의예과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거의 1/3 가량을 유급시켜 부족한 인원을 편입생으로 채웠습니다. 이 때도 공사중이었지만 현재의 의학관 건물 1층에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보건학과가 새로 개설되고, 의예과도 80명으로 증원되어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학교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981년에 전국소년체전이 강원도에서 열리면서 원주도 크게 변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3년 말, 본과 3학년 정신과 실습에서 대량 유급사태가 발생하여 저를 포함한 일부 학우들이 눈물을 머금고 이듬해 본과 3학년 병원 실습을 또 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충격이 워낙 커서인지 지금도 한 번씩 악몽을 꾸곤 합니다. 78년 입학 동기들은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 또 다시 실습을 하려고 하니 신세가 처량하여 거의 매일 병원실습이 끝나면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본과 4학년이 시작되면서 정신과 실습 유급생들끼리 스터디그룹을 형성했습니다. 도깨비집에 스터디그룹별로 방이 배정되어 같이 공부하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여행다니며 우정을 다졌고, 이것이 현재도 매년 3개월 간격으로 4회씩 정기모임을 가지는 계기가 된 듯합니다.

아무래도 학창생활의 추억으로는 졸업반 때 도깨비집에서의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절 에피소드로는 매일 점심과 저녁 식사 후 음료수나 후식을 먹기 위한 냉정한 사다리타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다가 출출하여 야식집에 라면 먹으러 갔다가 누군가 한 명이 바람을 잡는 바람에 딱 한 병만 먹자던 소주가 점점 늘어 결국 만취하여 공부하는 더 이상 못하고 다음 날 오전까지 병원실습을 빠져가며 취침하던 일, 다방에 전화하여 커피를 배달시키던 일(당시에는 다방레지가 도깨비집까지 커피를 배달하러 왔음), 의사국가고시를 눈앞에 두고 인턴선발시험이 끝나자마자 도깨비집 멤버들과 같이 무작정 떠났던 2박 3일간의 속초 여행 등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즐거웠던 시기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의과대학 졸업반 때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되돌아가고 싶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시절이 가장 순수했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충만했던 시절이어서 그럴 것입니다.

1986년에 졸업하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1987년부터 3년간 진단방사선과(현재 영상의학과)에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1989년 10월 마지막 날, 이듬해 초에 예정된 전문의시험 준비와 신촌세브란스병원 파견을 겸하면서 1978년 3월부터 시작된 원주생활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1990년 1월 말, 지금은 대전으로 이사를 간 대구의 군의학교에 군의 20기로 입소하여 1주간 신체검사를 받느라 시간을 보낸 후 영천의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8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구군의학교로 돌아와 2주간의 교육을 받고, 현역 육군대위로 임관하여 첫 임지인 양평에서 제20기계화보병사단 기갑수색대대 군의관으로서 군에서 말하는 FM(Field Manual)대로 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절에 모신 대대장님을 비롯한 군간부들은 현재 대부분 전역하였지만 매년 2~3회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같이 하고 있고, 저 역시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국군원주병원을 임지로 신청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국군부산병원으로 발령이 나서 1991년 4월부터 부산생활이 시작된 것이 무려 8년간 이어졌습니다. 부산에 가 있는 8년동안 그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의 연락이 다 끊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소위 은둔귀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군부산병원 방사선과장으로 군의관 생활을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했더니 최우수 군의관으로 선발되어 국군부산병원 창설기념일 날 국군의무사령관 표창을 받은 기억이 새롭습니다. 부산에는 지인이나 인맥이 전혀 없다보니 병원내 비주류였던 경북의대 출신 군의관들(경북의대를 나왔지만 전공의 수련은 부산에서 받음)과 친하게 지냈으며, 경북의대 출신 군의관이 현재의 와이프를 소개해 주어 결혼을 했고, "Made in Busan"으로 두 딸을 얻었습니다. 1993년 4월말에 군에서 전역한 후 정의화 국회의장이 운영하는 김원묵기념 봉생병원이 첫 직장이 되었습니다. 3년간 근무한 후 월레스기념 침례병원으로 옮겨 갔으며, 1999년 봄에 만 8년간의 부산생활을 접고 부모형제가 있는 서울로 이사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버님 친구의 친구분 병원에서 잠시 일한 후 강남역 소재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2년여 일을 했습니다. 그 후 원주의대 후배이자 압구정동에서 비보험분야의 터줏대감으로 자리잡은 7회 졸업생 박상훈 원장의 메디코스의원에 취직하여 비만을 비롯한 각종 비보험 술기를 배우면서 2~3년간 내공을 키우다가 어느 순간 비보험 분야에 대한 회의가 일어 그만두고 잠시 쉰 다음 파주를 거쳐서 현재의 포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2011년 5월, 졸업 25주년 재상봉행사 참석관계로 정말 오랜만에 원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상전벽해(桑田碧海)란 고사 성어를 떠올릴 만큼 발전한 모교와 병원의 모습에 한없이 기뻐고, 향후 더욱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모교 1층 로비에 제가 78년 입학할 때 자필로 기록하였던 각종 서류가 전시되어 있는 걸 보고 감개무량하였습니다. 78년 입학할 당시 신입생중에 강씨, 고씨, 구씨, 권씨가 없었던 관계로 가나다순에 의해 제가 1번이 되었고, 원주의대 최초의 학번이다 보니 제가 1번으로 전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번은 동창회장을 역임하였던 김남동 동문입니다. 사실 제가 역수로 잘나가는 개원의는 아니다보니 6년 전 일정액을 기부한 이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자금 출처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부친께서 30년 이상의 외무부(현재 외교부) 외신과 공무원 생활을 거의 청백리처럼 하셨기에 물려줄 재산도 거의 없으셨으니 아마도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제가 군의관 복무때문에 시작했던 8년간의 부산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복귀하였을 때 직장이 강남역~압구정역 축선상에 있었고, 부산에서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께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셨다가 잊지 않고 연락을 주시곤 했습니다. 홈앤드어웨이 법칙에 의거하여 제가 접대하는 입장이 많았는데 서울의 명소(?)를 대상으로 부산쪽 의국들에 정보를 공유해 오다보니 명소 방문을 위한 비자금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비자금 조성을 위해 '메디게이트' 구인란을 이용하여 연휴나 명절때만 한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어느 정도 무난하게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준 학장님 시절 "장학금 토해내기 운동"과 학교와 병원 이전을 위한 건립기금모금 소식을 접하면서 학교와 병원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달력에 붙게 표시된 날은 거의 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전환한 것이 목표로 했던 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휴일 알바의 힘"이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기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막상 직접 행하고 나니 마음이 더 중요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978년 원주분교가 개교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디서 무얼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때마다 모교와 병원에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모교가 있었기에 현재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 우연히 고교시절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한 동창들끼리 연락이 되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앞서 다들 1997년말 IMF 폭탄에 맞아 원래의 직장을 잃으면서 직종과 업종을 바꾸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한편으로 모교에 대한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38년 전, 제대로 된 교사도 없이 콘서트 건물에서 시작한 학교가 이제는 개교 40주년을 바라보는 중견 의과대학으로 성장한 모교의 발전을 위해 좀 더 기여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부친께서 소천하시어 말로만 듣던 벽제승화원에 처음 가 보았습니다. 한줌의 재로 변한 납골함을 들고 나오시는 수많은 유족들을 대하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공수래(空手來) 공수거(空手去)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고 잠시 빌린 것 뿐이다. 남은 인생은 부질없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주위에 많이 베풀면서 즐겁게 살아야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기부는 마음만 있으면 액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2년 후에는 모교가 개교한지 4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좀 더 많은 동문들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동참하여 모교와 병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 생리학교실 3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박규상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1993년 졸업)



물을 마실 때마다 그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하라는 뜻의 음수사원(飲水思源)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우리 생리학교실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문의 길은 혼자만의 수련을 통한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 사람과 헌신의 이끌어 주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과 이를 실천으로 보여주신 원로 교수님들로부터 생리학교실의 역사가 시작되어 이제 30년의 아름다운 전통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여건보다는 미래의 희망을 가슴에 품고 내가 아닌 다음 사람이 거둘 수 있는 열매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으신 헌신, 온유와 겸손으로 어떤 강한 훈계보다도 무거운 사명을 가르쳐 주신 시간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1978년 개교 이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강두희 명예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의 지원으로 생리학 교육이 시작되었고, 1985년 9월 이종우 교수님께서 부임하신 것이 생리학교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2월 생리학교실의 30년을 기념하는 작은 모임을 통해 그 간의 시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축하와 격려를 위해 먼 걸음을 아끼지 않으신 원로 교수님들의 모습과 봉사로 가득한 삶의 여정을 이야기로 들려주신 박양생 교수님, 연구 결과와 함께 연구자의 삶을 보여주신 여러 교수님들의 모습들이 저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모든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나온 시간을 통해 오늘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기에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을 보내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30년을 뒤로 하고, 앞으로의 30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역량 있고 신뢰받는 의료인을 배출하는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를 이루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이고자 우리 교실원들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의 흐름에서 오늘날 저희 모습은 아주 미약한 존재이지만 사명을 잊지 않고 작은 발전에도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파신 선생님들께 대한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다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이한성 선생님을 만나다



이한성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의무부장, 1999년 졸업)

첫 임상실습인 정신건강의학과 실습을 어느새 마지막 하루 남긴 3월 24일, 현재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의무부장이신 이한성 선배님과 인터뷰를 갖기로 했다. 이런 인터뷰는 처음 해본 것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스포츠팀 팀닥터가 되고자 의대에 진학을 했고 지금까지 그 목표를 간직하고 있는 바, 지난 2013년에 이영희 교수님과 면담을 가진 경험과 더불어 뜻깊은 만남이 되었다. 평소 평창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회의차 원주에 오신 날 기회를 잡아서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 ■ 먼저 선생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원주의과대학 93학번이고, 99년도에 졸업을 해서 공중보건의를 전남 해남과 완도에서 했습니다. 2002년부터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과 내과 레지던트를 한 후 신장내과 전임의를 하다가 국제진료/국제보건쪽에 뜻이 있어 감염내과 전임의를 또 했습니다. 2009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2년 정도 근무했고, 정책 관련 일을 더 하고 싶어 미국에 유학을 다녀왔는데 국제보건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되어 우리나라, 특히 강원도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기여할 기회를 잡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 의대에 진학하신 이유나 의사가 되려고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다른 데는 적성이나 취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아버님께서 생리학교실에 계시면서 권유를 하셨고, 다음으로는 제가 남을 돕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학이 그런 일에 가깝다고 생각한 것이 의사의 길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 ■ 대학시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떠올려 주십시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친구들과 어울렸던 기억입니다. 아시겠지만 의대를 다니면 같이 고생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굳이 공부가 아니더라도 친구들과 운동을 하거나 놀러 다닌 순간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 ■ 지금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계신데 어떻게 해서 이곳에서 일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원래 기획이나 행정 쪽에 관심이 많아서 국제보건 분야 중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공인덕 교수님께서 제가 미국에서 그쪽 계통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다가 이번 평창올림픽 최고의료책임자이신 이영희 교수님께 말씀을 해 주셔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학교를 다녔던 강원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외국인들에게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싶은 것도 선택의 이유입니다. 이제 미국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유럽 쪽은 아직도 한국을 의료 후진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싶었습니다. 또 제가 입학한 후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발전을 한 우리 병원을 옆에서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사람이든 기관이든 발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건 부모가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 만큼이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 ■ 조직위원회에서 평창올림픽을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는 일, 예를 들어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의사가 하는 일, 아니면 조직위원회에 있으면서 의무부가 하는 일을 기타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사이면 당연히 환자 고치는 것만 하는 것으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의무부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서 저희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어떤 의료에 속한 자원, 예를 들어서 인력이 될 수도 있고 장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적절한 곳에 배치시키는 것이 저의 임무인데, 제 임무가 진료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일부이긴 하지만 저희가 가서 직접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행정이나 정책을 하는 것도 아무래도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배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는 게 좋아서 선택한 일입니다. 제가 조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일종의 실험처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의사로서의 커리어를 뒤돌아 보았을 때 제일 기억에 남은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한 2년입니다. 가장 보람이 있었거든요. 2009년도 3월에 입사를 했는데 4월에 신종인플루엔자가 터져서 육체적 부담이 내과 전공의 1년차 때만큼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의 지식을 이용해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나름대로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종인플루엔자 자체가 안 생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감염내과 전임의를 한 만큼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전공을 살려 좀 더 스케일이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 ■ 국제의료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하셨는데 올림픽에서 활동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을 한 후에 미국에서 행정이나 정책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적용할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을 영어로 Resource mobilization이라 할 수 있는데 올림픽이 끝난 후에 낙후되어 있는 강원도 공공의료에 장비나 자원들을 재배치해서 이곳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다만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MRI나 CT같은 고가장비가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구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 유학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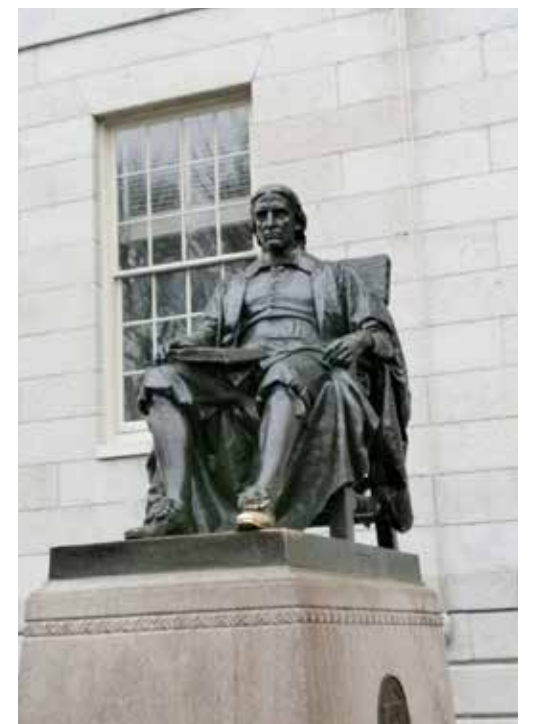
유학은 하버드 대학교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했습니다. 원래 2년 석사과정인데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되어 추가로 1년을 더 있어서 3년을 보냈습니다.

### ■ 대학원에 가신 이유는 말씀해 주신 정책들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였는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 때만 해도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진료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인문학적인 요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이후에 예방일 교수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수님들께서 의료와 의학에 인문사회학적인 요소를 첨가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저는 어차피 한정된 의료의 재원을 어떻게 잘 분배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의대에서 배우지 못한 경제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협상과 설득에 필요한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찾아 보니 공공행정대학원이 눈에 들어왔고, 운이 좋게도 하버드에 있는 케네디 스쿨에 합격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15살 어린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했으니 만학도라 할 수 있습니다.

### ■ 만학도시라면 유학을 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본과 3, 4학년만 해도 이해와 암기가 어렵지 않았는데, 제가 공부하는 분야에 외울 것은 많지 않았지만 제게는 생소한 학문이다 보니 거시경제, 미시경제같은 것들이 어렵기는 했습니다.





■ 하버드 대학교라고 하면 최고의 대학인데, 3년동안 지내시면서 보시기에 대학교의 학풍이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분위기가 우리랑 많이 다른데 제가 느낀 바는 하버드 학생이라 해서 결코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다니시는 분들보다 머리가 더 좋지는 않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에 차이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의대생들의 문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burn-out이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거죠. 저는 대학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본과 2-3학년 정도 되니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때를 경험했습니다. 이상훈 학생도 경험을 하셨을 듯한데 하버드 학생들은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학풍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용할 수 있는 자료나 자원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Cushing syndrome을 배운다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지만 미국 학생들이 Cushing이라는 사람한테 직접 배우거나(물론 Cushing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런 석학들과 직접 만나볼 기회가 많은 것입니다. 저는 노암 촘스키 같은 분을 도서관에서 몇 번 만나볼 수 있었고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박사도 볼 수 있었고, 그런 석학들과 자주 마주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부러웠습니다.



인터뷰: 이상훈 (의학과 3학년)

■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소에 개인적으로 동료 의사분들에게 다소 아쉬웠던 점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도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 물론 병을 고치는 것도 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직업적인 부분이고 사회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의사 사회 전체가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오히려 매도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또 사회의 한 공간에서 의사라고 하면 아웃사이드의 느낌이나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을 받는 것이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후배들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의사들은 스스로를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꼭 대통령이 되라가 아니라 하다 보면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정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유명한 스포츠팀의 주치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융합하는 의사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선배들도 그런 것을 많이 안 했고 저도 그런 선구자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하려는 후배들을 이끌어 주고 싶습니다.



## 의학과 학생회장으로서의 1년을 돌이켜보다



지난 2015년, 부족함 많던 제가 의학과 학생회장이라는 무거운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회로써,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여 학우들에게 의학과 학생회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학생회 임원들은 우리 학우들을 위한 새로운 행사를 만들기 위해 각자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발걸음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기증한 국가고시 문제집과 교과서 등을 모아 놓고 이를 원하는 학우들이 기부금을 내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모인 기금은 어려운 환자를 돕는 '1% 나눔 운동'에 전액 기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마이 리틀 플리마켓'을 열어 많은 학우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우리 학교를 졸업한 이후 전공의로서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선배님 두 분을 모시고 '선배초청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곧 현업에 나서게 될 예비 의사들에게 가까운 선배가 알려주는 현장감 넘치는 강연과 조언을 이끌어낸 이 행사는 학우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 해 동안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의미로 우리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Best Teacher Awards'를 드렸습니다. 이는 교수님들께 전하는 긍정의 소통이 되어 이후 학생들이 더욱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나눔릴레이-조혈모세포/조직기증 캠페인' 등을 통해 학교 외부와도 소통하여 우리 학우들이 참된 예비 의료인으로서 다양한 사회 기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해 무엇보다 고되었던 일은 6년만에 우리 학교가 의학교육인증평가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로 의학과/의예과 학생회 임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학생보고서 위원회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직접 작성한 설문지를 통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 학교의 교육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평가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를 약 100장 분량의 학생보고서에 가감 없이 담아내어 의학교육평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여러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선 이런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개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학교의 명예를 위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힘든 시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항상 학생 복지에 무한한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켜봐주시는 많은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학생과 학교 모두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이라는 하나의 단단한 공동체로서 손을 맞잡고, 우리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지금처럼 흔들림 없이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5년도 제2대 의학과 학생회장 정은지



## 연극 동아리 "극회 ㅅ.ㄹ" & 남성아카펠라 동아리 "보보스"

배철오(의학과 2학년) & 임현수(의학과 2학년)



### 동아리 소개와 근황

"삶", "사랑", "사람"은 모두 ㅅ.ㄹ 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1991년에 창단되어 올해로 25주년을 맞는 극회 ㅅ.ㄹ 은 원주의과대학의 연극 동아리로서 매년 다채로운 연극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원주의과대학 학생들은 물론 원주 시민의 문화생활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채플, 워크샵 공연 이외에도 마음이 맞는 사람만 있다면 언제든지 공연준비를 하며, 코믹, 로맨스, 스릴러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무엇이든 공연을 펼치는 동아리입니다.

VoiceBoyz, 줄여서 보보스는 2001년도에 창단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의 남성아카펠라 동아리로,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노래를 즐기는 공연 동아리입니다. 현재 동아리에 52명의 부원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남성은 하이테너, 세컨 테너, 바리톤, 베이스의 네 파트로 공연에 직접 참여합니다. 주로 반주를 담당하여 공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여성 회원들도 가끔씩 무대에 올라 보는 이들의 관심을 끌곤 합니다.



### 동아리 활동

매년 두 번의 채플공연과 워크샵, 정기공연 등 4회의 공연을 펼칩니다. 1학년과 2학년이 함께 올리는 채플공연을 통해 신입생들이 자연스럽게 연극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공연 준비과정을 익히도록 합니다. 워크샵 공연은 채플공연을 통해 연극을 한번 경험해본 1학년이 스스로의 힘으로 올리는 첫 번째 연극입니다. 물론 첫 연극이니 만큼 공연준비과정에서 2학년은 물론 고학년 선배들까지 두발 벗고 나서서 공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공연은 학기 중에 연습하여 학기 말에 올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 동아리임에도 불구하고 방학중 합숙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2학년 때 채플과 정기공연을 마치고 나면 그 이후에 의무적인 공연은 없으며 후배들의 연기 지도와 공연 준비를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2년에 걸쳐 연극의 매력에 빠져버린 고학번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공연을 준비합니다. 공연을 하고 싶은 이는 시기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연을 준비하고, 또 직접 만드는 일 외에 선후배가 함께 대학로로 연극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 기억에 남는 이야기

객석에 불이 꺼지고, 암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무대 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오묘한 긴장감. 그리고 눈부신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로 나서는 그 순간의 성취감! 한번이라도 이 기분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이 순간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게 됩니다. ㅅ.ㄹ에서 연극이 마약과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마도 마지막 순간에 누리는 형용하기 어려운 성취감 때문일 것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이번 공연만 끝나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무언가 허전해지고, 다시 어느 샌가 연극공연을 향한 욕망에 온몸이 달아오르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한 회 한 회 공연마다 매번 다른 우리들의 이야기들이 마치 추억이 담긴 앨범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그 안에는 우리들의 삶, 사랑, 사람이 담겨 있습니다.

보보스는 매년 봄과 가을의 동아리 MT, OB 선배님들과 함께 하는 홈커밍과 같은 친목활동, 2학기 초의 정기공연, 신입생을 위한 새터공연과, 또 채플 시간을 이용한 공연 등 공연활동을 주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공연은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 선배님들까지, 모든 학년이 참여하는 큰 공연으로 보보스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멋진 공연을 하기위해 여름방학에 약 4주 정도의 연습기간을 갖고 합숙을 하며 함께 연습을 하는데 학기 중에 공연연습을 할 시간을 가지기 힘든 학과의 특성상 보보스에 처음 가입한 신입생들이 보보스의 매력을 처음 맛보는 정말 중요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채플 공연에선 주로 기독교 음악을 아카펠라로 편곡해 공연합니다. 새터공연은 예과 2학년과 본과 1학년 중심의 공연으로, 겨울방학에 약 2주 정도의 연습기간을 거쳐 신입생들에게 보보스의 멋진 모습을 선보이고 함께 새터를 즐길 수 있는 공연입니다. 그 외에도 선배님들 결혼식에서의 축하공연을 하거나 졸업생들의 사은회 초청공연, 기타 학교와 병원 행사에 초청공연 등 매년 많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과 1학년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보보스의 특성상 학기 중의 일정은 정기연습과 친목활동 정도인데요, 덕분에 진정한 아카펠라의 맛은 여름방학에 합숙을 하면서 처음 느끼게 됩니다. 제가 처음 맡은 파트는 바리톤이었는데요, 음도, 박자도 너무 어려워 한참을 해봤지만 선배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셔서 멋지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바리톤 파트를 혼자 부를 때 뭔가 부족하던 노래가 하나하나의 파트들이 합쳐져 멋진, 완벽한 하나의 노래가 되어갈 때의 그 감동과 전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합숙은 학기 중에 많이 친해질 기회가 없었던 선배님들, 동기들과도 더욱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보보스에 가입하고 처음으로 맡은 정기공연에선 정말 긴장도 많이 했었고 실수도 했었지만 선배님들의 격려와 관객분들의 환호가 큰 무대에서 처음 노래해보는 저에겐 정말 짜릿하고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



## OB분들과의 교류

연극이 남기는 오랜 여운과 추억 덕분인지, 학교를 떠나신 뒤에도 선배님들은 극히 수.크에 계속해서 관심과 도움을 주십니다. 선배님이자 동아리 지도교수님이신 정현철 교수님께서도 동아리에 부족함이 있는지 항상 신경을 써 주십니다. 4월에 열리는 매년 홈커밍데이에는 1기 선배님들을 포함하여 많은 선배님들이 참석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매 정기공연마다 선배님들께서 공연을 보러 오시기도 합니다. 재학생과 OB 선배님들이 함께 공연을 하기도 하고, 재학생들이 OB 선배님들의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OB 선배님들이 자칫 어려울 수도 있지만, 수.크에서는 연극에 대한 이야기와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어우러지면서 즐거운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 자랑하고 싶은 동아리 이야기

수.크 이라면 적어도 한번은 무대에 오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졸업 후에 의사, 간호사, 치위생사와 같은 의료인이 될 학생들이 연극을 경험 해본다는 것에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연기가 단순히 배역을 흉내 내는데 그치지 않으려면, 본인이 맡은 배역과 캐릭터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사를 던진 걸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일까? 대본을 읽으며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게 되고,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배역을 이해하고, 몰입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의 방식'에만 익숙해져 있던 모습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회에 나가서 환자를 보시는 OB선배님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연극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운다면 후에 환자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보보스는 창단 멤버이셨던 선배님들부터 가장 최근에 졸업하신 선배님들까지, 정말 많은 OB 선배님들께서 정기적으로 동아리를 위한 회비를 건으셔서 보보스를 도와 주십니다. 매년 겨울에 신촌에서 신년회를 가지는데 이 때 많은 OB 선배님들과 재학생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또 학기 중에 홈커밍 행사도 진행되는데, 작년엔 펜션을 빌려 OB 선배님들과 재학생들이 함께 MT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기적인 모임을 제외하더라도 정기연습과 합숙에도 OB분들께서 자주 참여하셔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간식을 사 주시기도 하시는 등, 정말 좋은 OB 선배님들께서 함께하시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보보스의 장점을 꼽자면 구성원들 간의 화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곡을 완성시키기 위해 개인 파트의 연습도 중요하지만, 돋보이는 솔로를 위해 자신의 파트를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조화롭게 녹여내는 코러스 또한 중요합니다. 다른 파트를 빛나게 하기 위해 자신의 파트를 녹여내는 것,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양보와 존중, 조화가 보보스의 진정한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숙과 공연으로 얻어지는 가족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그 속에서 재학생들보다 앞서 이 길을 걸으신 OB분들과 교류할 수 있으며, 동아리 후배들을 아끼고 챙겨 주시는 선배님들께서 항상 큰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동아리에선 볼 수 없는 권주가와 가우데아무스도 동아리 모임에 큰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아리를 아껴주고 이끌어주는 선후배 동기님들이 있기에 보보스는 원주의과대학 최고의 동아리라고 자부합니다.

## SCORE – 세계인임을 느끼게 한 경험 김수원 (의학과 2학년)



2016년 6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SCORE exchange program에 참석하느라 유럽에서 시간을 보냈다. SCORE는 세계의대생연합(IFMSA)에서 주관하여 "Aim to develop both culturally sensitive students and skilled researchers intent on shaping the world of science in the upcoming future"의 미션을 가지고 진행되는 의대생들의 연구교환 실습 프로그램이다.

1951년에 임상실습교환 프로그램인 SCOPE가 시작된 데 이어 연구교환을 위한 SCORE 프로그램이 생겨난 것은 세계화의 시대에 미래의 보건의료를 책임질 의대생들이 자국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새롭게 배우고 경험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교류를 하는 것이 더 멋지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해외여행을 통한 색다른 경험을 가지는 걸 즐기며, 의과대학 생활중 가치 있고 보람있는 활동을 찾으려 한 나는 기대와 꿈을 가지고 SCORE 참여를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교내절차를 거쳐 영어로 진행되는 교외면접에 응한 후 2015년 여름에 이탈리아에서 연구를 하게 될 기회를 잡았다. 이미 이탈리

아를 다녀온 두 분의 선배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며 음식과 예술, 뜨거운 지중해의 해변과 열정과 낭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생각나는 나라에 대해 기대를 안고 준비를 했다.

학기말시험이 끝난 3일 뒤 곧장 이탈리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로마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예매한 고속열차를 5시간이 넘게 달려 이탈리아 동북쪽 프리올리 베네치아 줄리아 주의 작은 도시 우디네(Udine)에 도착하니 이미 두어 달 전부터 연락을 한 contact person(타국의 의대생이 자국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학생)이 다른 친구와 함께 마중을 나와 있었다. 먼 나라에서 메신저로만 연락하던 친구를 실물로 대하니 낯선 곳에서의 두려움이 싹 사라졌다. 이탈리아 친구 덕분에 먼 타국에서의 시작이 순조롭다 생각한 순간, incoming(이탈리아에 온 다른 나라의 교환학생들)을 위해 그 곳 학생들이 준비한 파티가 준비되었다. 외국 의대생과 첫 만남이라 긴장도 되었지만 환대해 준 친구들 덕분에 어색함과 떨림은 곧 사라졌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형 한 명이 미리 와 있어서 한국어로도 안부를 주고받으며 친근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그들이 즐겨 마시는 특별한 칵테일 음료수인 스피릿츠를 마시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



고 친해지다 보니 첫날밤이 지나가고 있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한 달간 사용할 버스 티켓을 구입한 후 우디네 의과대학의 연구실에 첫 출근을 했다. 나를 지도해 줄 면역학 교수님께 인사를 드린 후 연구실로 향했다. 생리학과 병리학의 오픈랩 시간을 통해 연구실 탐방 기회가 있었지만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면역학 실험실에서 초점을 둔 세포는 비만세포였다. 의예과 2학년 기초면역학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떠올랐다. 비만세포는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선천성 면역에 관여하는 물질을 가진 세포인데 B cell과의 상호작용이나 T cell과의 상호작용, 또 자가면역질환들에 영향을 주는 여러 단백질들과 인자들을 내뿜는, 무궁무진한 기능을 가진 세포다.

나는 BAFF란 단백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팀에 들어가게 되었다. BAFF란 대식세포 등에서 표면에 발현되는 일종의 단백질인데 비만세포에서도 생산되는 것이다. 이 BAFF가 B cell의 증식, 넓게는 면역세포의수가 과도하게 많아지는 multiple myeloma나 자가면역질환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그 원인과 결과, 자극과 반응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세포 배양, 단백질을 분석하는 western blot이나 ELISA, 유전자를 검사하는 PCR, 세포의 특성을 특정 성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측정하는 Flow cytometry까지 정말 다양한 생화학, 분자생물학적 연구 기법들이 응용되고 있는 분야가 면역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수님을 구심점으로 각각의 구성원들이 저마다의 주제를 가지고 바쁘게 움직이며, 서로 돕고 보충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기초 연구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흰쥐의 femur에서 다분화능 세포를 추출해서 비만세포로 유도할 수 있는 사이토카인을 넣어주면 비만세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수 일이 필요했다. 중간에 작은 실수라도 있게 되면 배양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등 반복적이고 지루할 수도 있는 과정이었지만 모두들 집중력과 흥미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각자의 연구를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생명과학 실험이라는 게 거창한 기계가 동원되는 건 아니지만 인내심, 기다림, 철저한 소독 등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실험 중간에 관련된 논문을 읽으며 틈틈이 공부를 했다. 그 가운데 자발적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연구실에서 연구에 참여하고 공부하는 이탈리아 친구를 매일 만나는 것은 또 다른 기쁨이었다. 그 친구는 굉장한 학구파였다. 미래

에 의사로 성장할 의대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어찌 보면 완고하리만큼 공부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그런 친구였다. 같은 본과 1학년이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인생과 가치관, 의대생활과 여러 주제에 대해 시간 지나는 줄 모르고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식당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연구실 사람들은 주로 연구실에서 식사를 했지만 나는 식당 쿠폰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 가야했는데 그 친구는 동행해주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이탈리아어로 통역을 해 주기도 했다. 한국과 이탈리아 의과대학의 커리큘럼은 조금씩 다르지만 수많은 시험이 연속되는 과정이나 미래의 모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주말만 되면 흥겨운 마음으로 집으로가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고, 함께 지내는 동료들과의 친근한 만남을 좋아하는 등 큰 맥락에서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좋은 의사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한다고 물었을 때 잠시 고민하던 그 친구는 세 가지를 말했다. 첫째, 환자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의사. 둘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사, 셋째, 경험이 많은 의사였다. 환자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려면 경청, 인간성, 진실함 등 많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순위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이 친구는 그런 무수한 많은 것들을 갖추기 위해 학생 때인 지금부터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탈리아는 거의 모든 대학에 입학의 자유가 있다고 한다.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만 시험을 치르고 각 의과대학 별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 한국에서 의대에 진학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일이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친 후 치열하고, 한편으론



삭막할 수도 있는 본과생활을 보내고 있는 이탈리아의 친구가 삭막할 수도 있는 현실에서 마음속에 따뜻한 의사의 이미지를 품고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나에게 베풀어 준 따뜻한 관심과 이해는 물론 그 친구가 가진 생각과 태도와 열정은 나로 하여금 많은 걸 느끼고 생각하게 했다. 3주 남짓 지났을 무렵, 그 친구는 동네 병원에서 외과 인턴십을 하기 위해 램을 떠났다. 이탈리아에서 고마운 사람을 만나면 선물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구입한 볼펜을 건네주며 마지막 인사를 하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를 공유하며 정도 많이 들었던 시간, 삭막할 수도 있는 연구실 생활에 따뜻한 정을 넣어놓아준 그 친구와의 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연구실 생활과 별개로 SCORE program에는 social program이라는 것이 있다. 첫 날 도착하자마자 열어준 환영 파티를 시작으로 연구실이 5시에 끝나면 다른 교환학생들과 함께 시내에서 여는 재즈 파티에도 가기도 하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갔다. 이탈리아 친구들이 직접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는데 아주대학교에서 온 형이 치킨을 만들자는 제안을 해서 치맥 파티를 하기도 했다. 시내에서 시원한 칵테일을 마시면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international food day라 하여 여러 나라의 의대생들이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음식을 체험하는 파티를 열기도 했다. 나를 포함한 한국인 교환학생 3명은 불고기 백반과 김을 준비했고 인도네시아, 튀니지, 헝가리, 크로아티아에서 온 친구들도 각자 나라의 음식들을 가져와서 정말 맛있게 먹으며 파티도 하고 즐길 수 있었다. 이탈리아 의과대학의 시험제도도 무시무시했다. 재시 기회를 5번까지 주다 보니 방학을 일찍 시작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으로 나뉘어졌다. 본과 1학년중 일찍 방학을 한 Alberto 덕분에 그 친구의 차를 타고 해변에 가서, 아드리아 해를 바라보며 해수욕을 할 수 있었고, 트리에스테라는 곳에 가서 휘황찬란한 오스트리아 왕가의 궁전을 구경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SCORE 기간중 잊지 못할 최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물의 나라 베니스에서 열린 redentore 불꽃놀이였다. 베니스의 수많은 건물들을 배경으로 하고 펼쳐진 불꽃놀이는 SCORE program의 대미를 장식했던 환상적인 시간이었다. 기대했던 이탈리아 사람들의 열정에 어긋나지 않게 의과대학생들도 함께 와인과 칵테일을 마시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한국말로 인사를 하기도 하는 흥겨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여러 social program이 좋았던 점은 이

탈리아는 물론 프랑스, 튀니지, 브라질, 헝가리, 크로아티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의료, 의과대학,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의학이라는 정말 특수한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인 만큼, 학년은 비록 달랐지만 서로의 의견에 공감대도 쉽게 형성되었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연구실 생활과 social program을 즐기다 보니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점 하나를 지적하라면 외국친구들의 실상도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시험 고민을 하고, 인생 고민을 하고,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름의 즐거움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이렇게 다르지만 비슷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의대생들을 통해서 배우고 같이 즐기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문화 속에서 성장한 만큼 여러 다른 환경들로 인해서 미처 생각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그 친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소양들 중 일부는 훗날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SCORE의 창립 목적처럼, 다가오는 세계화 시대에 이렇게 여러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배우며 학문적으로도 세계의 여러 문헌들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분명 언젠가 변하는 의료사회와 미래에 매끄럽게 대응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 먼 나라, 한국에서 온 낯선 동양인이었지만 따뜻한 환대와 관심 덕분에 그들과 함께 하나 되어 즐기고 배우고 경험했던 시간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언젠가 한국에서 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따뜻한 미소보다 더 값진 환대와 호의로 이젠 한국을 소개하고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또 한 번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





## 주전공은 라디오 방송



고은산 (의학과 1학년)

"52년도에 라디오에서 들리던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지. 정신을 차려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게끔 주파수를 맞췄지.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당신의 목소리를 계속 들었을텐데.", "우리는 낱아버린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다시 만났지. 당신은 오래전에 녹음된 음악을 듣고 있었지. 아마도 예전에 유행했었던 음악을 기억하기 위한 것일지."

미국의 락그룹 버글스의 노래 <Video kill the radio star>의 한 구절입니다. 영상과 TV가 사람들의 주 오락거리가 된 이후로 라디오가 쇠퇴하게 된 것을 밝은 보컬로 노래합니다. "아마도 예전에 유행했었던 음악"이라는 구절엔 단순히 라디오뿐만 아니라 영상매체의 발달로 음악 자체가 변하게 되었음을 슬퍼함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디어 지형이 변하자 라디오도 음악도 모두 변했습니다. 아직도 방송사들은 라디오국을 운영하지만 대부분 가수나 배우가 DJ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의 등장과 성장으로 인터넷 방송 BJ들은 20,30년전 라디오 DJ들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음악 역시 마찬가지로 전보다 퍼포먼스와 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지요. 또한 그러한 음악의 증가는 라디오에서 틀 수 있는 음악의 폭을 줄이는 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만 라디오는 살아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하는 동경의 것'이 매력이던 라디오는 '내 지인, 내 지역의 것'으로 변모해 다시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마포와 구로

에서, 대구와 성남에서, 전국 각지에서 매일매일 지역 풀뿌리 라디오들이 방송되고 있고 저 역시 그 속에서 조그마한 방송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원주영상미디어센터의 지역 라디오 프로젝트 <원더풀 라디오>입니다. <원더풀 라디오>는 원주영상미디어센터의 지역 공동체 라디오 프로젝트이자 이를 통해 만들어진 하나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1년간의 라디오 DJ 교육을 수료하면 DJ방송 자격을 얻고 방송이 편성되며 속해있는 DJ들의 나이대는 10대부터60대까지 다양합니다. 저는 매달 둘째주 금요일 혼자서 방송 <분실물 보관소>를 진행하다가 또 저처럼 혼자 방송하던 상지대 김은수라는 친구와 함께 매달 둘째주 화,금/넷째주 화요일에 2시간씩 듀오로 <은산, 은수의 산수시간>이라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보통 학우들이나 원주에 사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진행합니다. DJ들끼리 서로의 방송에 게스트로 오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방송으로 지역의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그들과 무언가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가장 큰 보람이자 즐거움입니다. 여기서 만난 인연은 단순히 라디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합동공개방송이나 밴드 결성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해나가며 지역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냅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는 다른 활동들도 참가해가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또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나갑니다. 라디오를 통해 지역 공동체가 모인다는 공동체 라디오의 이상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티비는 잠시 접어두고 친근한 지역의 목소리와 들어보지 못했던 노래에 귀를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 실시간 방송 : 세이캐스트에서 "원더풀 라디오"를 검색 원주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 재방송 : 팟빵 홈페이지에서 "원더풀 라디오" 검색
- 방송시간 : 둘째주 화,금 / 넷째주 화 저녁 7시 ~ 9시

## 주전공은 의학블로거 활동



이동현 (의학과 4학년)



편집자 주: 인터넷에서 "이동현", "의대", "블로그"를 검색하면 이동현이 운영하는"파란만장 의대생 라이프(<http://blog.naver.com/ldhsaly>)"블로그뿐 아니라 수많은 인터뷰와 관련 기사를 검색할 수 있다.

저는 흔히 말하는 파워 블로거가 아닙니다. 일개 블로거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학 의학과 소식지에 초대받은 것은 방문자를 위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흔치 않아서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고 블로그를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블로그를 하는 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하는 것처럼 흔한 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파란만장 의대생 라이프"를 운영하고 있는 본과 4학년 이동현입니다. 블로그 상에선 '한마음'이라고 불립니다.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한 건 2010년 3월, 재수를 시작하면서 재수생활을 기록하는 용도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를 하다 보니 의대생, 공대생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그분들의 블로그를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거야'라는 꿈을 요. 또한 가끔 그분들 블로그에 댓글을 달 때면 가식 없는 응원의 글로 답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힘든 재수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의대에 합격하고 난 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의 기록이 다른 누군가에겐 희망의 기록이 될 수 있겠구나'

'사소한 댓글 하나이지만 누군가에겐 큰 힘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의 "파란만장 의대생 라이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싶은데 막상 봉사활동을 하려니 겁이 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블로그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지도 모르는 글 하나, 댓글 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ship 유이슬 (의학과 4학년)



저는 2016년 1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총 6주 동안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에서 인턴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제 경험을 통해 다른 후배, 동기 여러분도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선택실습의 경험을 소개하려 합니다.

### ■ 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를 선택했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떤 의사가 될까를 고민하던 중 병원에 국한하지 말고 국가기관이나 세계기구에서 일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과 2학년 지역사회의학 수업에 초청강사로 오신, WHO에서 일하신 바 있는 가톨릭대학교 김석일 교수님께서 수업 말미에 WHO의 인턴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을 하시며 관심이 있는 학생은 연락을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WHO는 이미 중학교 사회 교과서와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국제기구이고, 특히 의학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WHO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고, 준비과정을 거쳐 일년 후 스위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 ■ WHO에서 인턴으로서 경험한 일은?

WHO는 1948년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UN산하의 보건전문기구로 전세계 194개국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 6개의 지역사무처가 세계 각지에 있으며 본사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CTS(Classifications, Terminology and Standards)의 상위부서인 Information evidence and research(IER)부터 Gender, Equity and Human Right(GER), Noncommunicable Diseases and Mental Health(NMH), Immunization, Vaccination and Biologicals(IVB), Family, Women and Children's Health(FCH) 등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CTS는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로 ICD의 기초가 되는 질병의 올바른 분류와 기준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WHO 인턴 기간은 최소 6주이고 보통 6개월 혹은 1년 이상 근무합니다. 오래 근무하는 인턴은 각 부서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직접 연구를 하고 성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방학을 이용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인턴을 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연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완료된 프로그램을 교육받고 직접 실행 해보는 과정을 통해 후에 다수의 사람이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단점을 사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현재 2017년 완성을 목표로 ICD 10에서 ICD 11로 개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저는 이 과정에서 10과 11을 비교하고 11의 효용성을 평가, 피드백 하는 것이 주업무였습니다. 이 외에도 WHO에는 매주 다양한 연사들이 진행하는 각종 세미나가 있으며, 인턴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발도상국의 소아암에 관련된 연구와 핸드폰을 이용한 자가 건강관리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순수의학분야에서부터 공학, 윤리 등 다양한 세미나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분야의 최신지견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제네바의 WHO는 본사에 해당하므로 수시로 크고 작은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저의 경우 일주일간 138회 executive board 가 있었고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한 긴급회의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WHO는 전 세계에서 인턴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인종, 국가, 직업을 가진 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의 인턴 모임에서 다른 부서의 인턴들과 대화를 나누며 친목을 다질 수 있습니다.



### ■ 인턴으로 지원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WHO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부서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신청을 위한 연락을 할 때 단순히 자기소개서를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 관련된 보고서나 연구과제물을 제출해야 하고 화상 면접을 보는 부서도 있습니다.

둘째로는 추천제가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가톨릭대학교와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학과에서 매년 추천을 통해 WHO에 인턴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보고서나 면접 없이 교내의 선발과정만 통과하면 추천에 의해 적은 준비만으로 인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김석일 교수님의 추천으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부서 선택의 기회가 없이 공통적으로 CTS 부서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 WHO 인턴의 장점과 단점은?

WHO 인턴의 장점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견문을 넓힌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5년간 의학교육을 마치고 갔지만 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휴학을 하지 않고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짧은 인턴기간을 통해 그 곳에서 일어나는 전문적인 업무를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보고, 간단한 일이라도 업무를 수행하며 배우고, 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로부터 교육을 받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회의가 열릴 때 비록 그 내용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회의가 열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세계 각국에서 모인 다양한 인종,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책에서 보는 것,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나라별로 의대생활과 의료제도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기후는 어떠한지 등 생생한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서 업무와 대화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회화 실력이 향상되는 것도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스위스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므로 주말을 이용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내에도 아름다운 곳이 많고, 제네바는 교통이 발달한 도시이므로 인접 유럽 국가를 여행할 수 있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스위스, 특히 제네바는 유럽의 많은 도시들 중에서도 물가가 비싸기로 손에 꼽히는 곳입니다. 제네바에는 WHO 외에도 UN, WMO(세계기상기구),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각종 NGO 등 수많은 국제기구가 있고 이 곳에서 일하는 인턴들은 모두 금전적 대가 없이 일을 합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려면 학교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에 미리 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WHO 인턴에 관심 있는 후배/동기들에게 하고 싶은 말

6주 간의 인턴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의 벽이었습니다. WHO뿐 아니라 해외로 실습을 떠나고자 생각한다면 영어 회화실력을 쌓아놓는 것이 외국 선택실습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할 뿐 말은 바 일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니 영어실력이 부족하다고 도망치지 말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선택지중 제가 WHO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후에 하고 싶은 일과 관련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분명 좋은 기회가 되어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오는 값진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WHO 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곳에 도전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본인의 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실습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 스스로 찾아나선 UCSF 연수기

김지우 (의학과 2학년)



"외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 및 결정은 본과 2학년 전에"

의예과 1학년 전인활동 시간 후 지금까지 핸드폰 메모장에 적혀있던 말이다. 어느덧 '본과'라는 말이 익숙해질 무렵, 매번 보던 문구였지만 이번에는 실행에 옮기겠다는 다짐을 했다.

방학마다 경험을 쌓기 위해 여행 목적으로 해외를 갔지만, 본과 2학년이 되기 전 겨울방학에는 의학이 발전한 타국에서 내 전공인 의학을 토대로 배우의 폭을 넓히고 싶었다. 하지만 교환학생프로그램을 통한 활동은 단체로 배우는 경향이 커서 개인적인 교육 기회를 우선시하는 내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마침 미국에 가야 하는 일이 있어서 평소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많이 소개시켜 주신 예병일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 피부과 교실의 최윤희 교수님을 소개받게 되었다. 두 분도 처음에는 한달 밖에 안 되는 짧은 방학 동안에 공부하러 갔다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번 기회에 경험을 꼭 쌓고 싶었기 때문에 짧은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의지를 굳혔다.

최윤희 교수님의 추천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UCSF

에 계신 Yoshikazu Uchida와 박경호 교수님을 소개받았다. 학기 중에 서류준비를 끝마치고 방학이 시작된 직후인 12월말에 출국을 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에 입국 바로 다음날, 두 시간이 걸리는 첫 출근길에 나섰다. 서울에서 원주로 통학하는 시간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미국인들과 샌프란시스코의 바쁜 출근길을 함께 한다는 생각에 나도 미국에서의 직장인이 된 것 마냥 신이 났다. 2시간 후에 도착한 UCSF의 Mission Bay Campus에서 박경호 교수님을 처음 뵈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지 얘기를 나누었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싶고, 이번을 계기로 미국에서 의사생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교수님께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도와주셨다. 우선 연구소 연구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피부장벽과 피부층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다. 피부층의 하나인 Stratum corneum에서 특정 단백질의 유무와 양을 알기 위해 western blot을 실시했다. 생화학 시간에는 여러 검출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배웠는데 연구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시행되는 실험기법이었다.

실제로 진행중인 연구여서 항체를 바꾸어 가며 방법을



배워나갔다. 손에 익은 후에는 처음 배운 protocol을 토대로 혼자서 western blot을 이용한 결과를 얻기도 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민폐만 끼치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는데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만으로 뿌듯해졌다. 한국에서 연구 한번 안 해본 나에겐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한 결과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었다.

피부과 연구소뿐 아니라 면역학과 연계된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면역학 교수님께 T세포 분리방법을 배우기도 했다. 면역학은 최근에 배운 과목이라 기존 지식을 다지고, 질문도 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피부과 교수님도 처음 해보는 실험에 보조로 참여하여 FACS를 이용해 본 것도 영광이었다. 요즘은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 연구가 일반적이다. 나는 아직 책과 논문에 나오지 않은, 실전에서 연구중인 지식을 배우는 것 같아서 글로 배우는 것보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정말 값진 경험은 전자현미경의 대가이신 Debra Crumrine으로부터 사람과 쥐의 피부조직의 초미세구조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 Debra(Debbie)는 한국의 여러 교수님들과도 협력연구를 하고 있었고, 최윤희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샘플도 볼 수 있었다. 각지에서 시료가 보내오는 것을 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문가의 역할을 실감했다. 교수님과 친해져 교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홍색가운도 입게 되었고 직접 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한 재료 만드는 일을 하여 내가 만든 조각으로 전자현미경을 통해 환자의 병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방학중이라 연구소에는 학생들이 없어서 교수님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 넓은 학문의 세계를 경험하고, 미래의 내 모습에 대한 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한국에서 학교생활에 치이다 보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런 시기에 미국에서 저명한 분들과의 인연 덕분에 나도 한 분야의 대가가 되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연구하고 주제를 논

하면서 각 분야의 대표들과 의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포부를 갖게 되었다. 미국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학문을 접할수록 더 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고, 이런 생각이 장차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 크게 했다. 사소한 의료문제에 치이지 않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가 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싶다.

왕복 4시간이라는 거리를 매일 오가며, 미국에서 정규 학교를 한번도 다녀보지 않은 내가 하루 종일 영어로 논문을 읽고 전문적이 내용을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었다. 처음에는 시차적응과 더불어 하루가 힘들었지만 어느새 그 생활에 적응하여 점점 새로운 경험을 찾아나서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람마다 적응기간은 다르겠지만 이 적응기간이 무서워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모든 일에 배움의 자세로 임하고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호기심을 갖는다면 더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주지 안 좋게 보지는 않으므로 열정을 표시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설렘 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생활은 열정만 있다면 미국생활은 물론 모든 도전에서 끝없는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한 달간의 여정을 마쳤다. 누군가의 도움은 받았지만, 온전히 혼자만의 의지로 이 과정을 시작했던 나였다. 처음에는 교수님의 업적과 학교의 명성에 누를 끼칠까봐 부담이 가기도 했지만 그만큼 더 노력한 결과 훌륭한 교수님들 밑에서 깊이가 있고 심도 있는 것들도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그 분들의 연구를 보면서 나의 꿈을 키워갈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나의 자립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수확이었다.

홀로 이 과정을 밟기로 결정했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이로써 나는 스스로 결심하는 경우 이 정도의 성과까지 얻을 수 있는 생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결코 내 자신이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의과대학에서 종종 볼 수 있지만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을 다 발휘하는 건 아닐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찾고, 그 능력을 찾기 위한 기회를 잡는 것은 추진력이라고 생각한다. 도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추진력으로 도전한다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는 학우들 누구나 이를 수 있음을 깨달은 후 즐거운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1월 10일 강원 닥터헬기 이송 심정지 환자 생존



1월 13일 무봉합 대동맥 인공판막 치환술 성공



1월 20일 제3회 재창조사업 기념음악회



1월 25일 제21차 해외의료선교



2월 1일 강원금연지원센터, 준법지원센터 MOU 체결

## StudyNJoy Study, Enjoy, and Joy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은 1978년 개교 이래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의료인을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의 수월성을 위해 기숙사는 기본 시설이며,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필수 시설입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은 교직원, 동문, 학부모듬 대학 구성원의 도움과 학교 예산으로 1988년과 1997년에 완공된 2개동의 기숙사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수용시설의 부족과 함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노후된 시설로서 새로운 기숙사 신축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5,500여명의 요람이었던 원의학사가 StudyNJoy라는 슬로건으로 사랑과 나눔의 유전자로 의료계를 이끌 인재들을 위해 기숙형 교육이 가능한, 쾌적하고 편리한 최신 시설이 갖추어진 새로운 면모의 기숙사를 개교 40주년을 앞두고 신축합니다.

### 새롭게 지어질 기숙사의 규모 및 시설

- 수용인원 : 약 300명
- 총 면 적 : 1,700평 (약 7.8평/실)
- 시 설 : 숙실, 학생 편의시설
- 관 리 : 최소 인력으로 최적의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기숙사
- 총 예 산 : 90억원

### 새 기숙사 건립기금 모금

- 모금 목표액 : 10억 (총 공사비의 약 10%)
- 모금방법 : 일반 및 중고액모금 (분할약정 가능)
- 기부자에우 : 연세대학교 규정 및 특별 규정 기부자 성명 부착 : 1실당 1천만원 공동공간에 기부자의 이름부여 : 1억원 이상

123호실  
이 방은 000(00과 0000년 졸업)님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열린 의료인'  
(기부자가 학생에게 주고 싶은 말)  
0 0 0

### 후원(약정)문의 안내

(26426)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대외협력실  
전화 : 033)741-0077 FAX : 033)741-0078  
E-mail : fund@yonsei.ac.kr





YONSEI,  
where we make *history*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26426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medical.yonsei.ac.kr](http://medical.yonsei.ac.kr)